

별을 쏘다

SUNGWOO HITECH MAGAZINE

2015. SUMMER vol. 005



바람 따라 발길 따라

가끔은 하던 일을 멈추고 무작정 떠나자
자연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다
때는 바로 지금이다
휴식은 또 다른 혁신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 여름! 떠나기 얼마나 좋은 계절인가.

SUNGWOO HITECH MAGAZINE

2015. SUMMER vol. 005

별을 쏜다 ★

발행일 | 2015년 7월 31일 (통권 제5호)

발행인 | 이명근

사보기자 | 강승호, 강현지, 김도형, 김유리, 김태우, 김태훈, 남창식,
박노실, 박상정, 박은혜, 손재경, 신민원, 안상수, 이성은,
이수승, 이승욱, 정영화, 최수영, 최용혁, 황지현 (가나다순)

발행처 | 성우하이텍 www.swhitech.com (인사노무팀 T. 070-7477-5022)

기획 및 디자인 | 미디어줌(T. 051-623-1906)

표지 작가 | 전현종

04 Company Song

내일의 도약을 향해

06 Hello Korea

여름의 문턱에서 한국을 만나다

10 World Wide

최고의 품질과 소통을 위한 노력으로 현지화에 성공한
중국 염성성우의 힘찬 발걸음

14 Here & There

중국에 가면 염성도 있고, 무석도 있고

18 현장 24시

'내일을 위한 혁신'을 그려내다



22 Thank you

너도 나도 감사한 DAY!

24 Field Sketch

5월의 함성 그 뜨거운 열기 속으로

27 Sungwoo Insight

성우인은 스마트워크로 똑똑하게 일한다!

28 Workshop

같은 곳을 바라보라, 그리고 공감하래!

30 Healing Travel

화순적벽에 묻혀 시인이 되다

36 Interview

한 걸음 변화하고, 두 걸음 혁신하다

40 Column

회사를 혁신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

44 Zoom In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말고, 물다리도 두들겨 보고 지나가자

46 Car Life

자동차 계기판 어디까지 알고 있니?

48 Reading & Leading

당신은 '변화와 혁신'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50 Issue & News

성우하이텍 사가(社歌)



내일의 도약을 향해

사가를 되새길수록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때로는 몽글하게
때로는 신명나게,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
사가를 부르는 사이
오늘의 변화와 내일의 혁신을
만들어갈 에너지가
호랑이 기운처럼 솟아날 겁니다.



1-85

열린 마음으로— 두 하— 나 되 어 서 로 사랑 하 며 이 게 는 시

광 과 민 속 으— 로 외— 지 어 머 람 께 하 는 성 우 되 어 요 성

우 하 이 텍 한 마 음 으 로— 감 동 을 만 들— 어 가 는 것 성

우 하 이 텍 한 가 족 으 로— 웃 음 과 행 복— 넘 치 는 것 더

높 게 더 낮 게 더 빠 르 게 끝 없 이 비 상 하 라 맴 리 We

are the one 모 두 손 잡 고 세 로 온 도 악 을 꿈 꾸 며 성 우 하— 이

텍

2

우 리 는 모 두 성 우 의 꿈 과 미 래 의 망 과 용 기 가 넘 치 는 열

정 과 힘 께 라— 먼 다 가 오 는 미 래 는 우리 성 우 의 것 성

우 하 이 텍 성 공 을 향 예— 세 로 온 도 전— 께 치 는 것 성

우 하 이 텍 세 계 를 향 예— 눈 부 신 위 상— 높 이 는 것 더

높 게 더 낮 게 더 빠 르 게 끝 없 이 비 상 하 라 맴 리 We

are the best 모 두 다 함 께 세 로 온 도 악 을 꿈 꾸 며 성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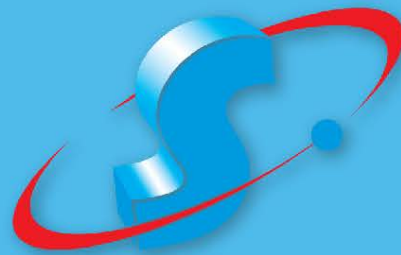
미 이 텍

열린 마음으로 노래하라!

멕시코법인 교육생들이 스페인어 사가를 제작했습니다.

사가를 부르는 그들의 입가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공존과 화합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 부르는 사가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SUNGWO HITECH Compañía Canción

INICIANDO CON EL CORAZÓN ABIERTO
CUIDÁNDONOS Y AMÁNDONOS JUNTOS

CONTANDO TODOS CON FE Y AMOR

ESO SERÁ PARA TI SUNGWO

SUNGWO HITECH CONFÍA EN TI

LUGAR DONDE PODEMOS SER FELIZ

SUNGWO HITECH TE QUIERE A TI

LUGAR DONDE HACEMOS SONRISAS

TAN ALTO TAN BAJO TAN RÁPIDO

VOLAMOS TODOS POR EL MUNDO

JUNTOS TOMADOS DE LA MANO

SOÑANDO PARA LLEGAR MÁS ALTO SUNGWO HITECH

CON UN FUTURO PROMETEDOR PARA SUNGWO

LLENOS DE ESPERANZA Y DE PASIÓN

HABIENDO GRAN ESPÍRITU EN TODOS NOSOTROS

AL FUTURO LLEGAREMOS JUNTOS

SUNGWO HITECH CON GRAN ÉXITO

DONDE LOGRAREMOS COSAS NUEVAS

SUNGWO HITECH PARA NOSOTROS,

LLEGAREMOS A LA CIMA DEL MUNDO

TAN ALTO TAN BAJO TAN RÁPIDO

VOLANDO AL FINAL DE TODO EL MUNDO

SEREMOS MEJORES TODOS JUNTOS

SOÑANDO PARA LLEGAR MÁS ALTO SUNGWO HITECH

ENG. SUNGWO HITECH Company Song

BECOMING THE ONE WITH OPEN HEARTS,
WE CARE FOR AND LOVE WITH EACH OTHER,
COUNTING ON EACH OTHER IN FAITH AND LOVE,
SUNGWO'S GONNA BE THERE FOR YOU,
SUNGWO HITECH, WITH ALL OF US,
WHERE'S MAKING GREAT IMPRESSIONS,
SUNGWO HITECH, IN ALL OF US,
WHERE WE ARE HAPPY AND WE SMILE,
MUCH HIGHER MUCH LOWER MUCH FASTER,
FLY TO THE END OF THE WORLD,
WE ARE THE ONE HOLDING OUR HANDS,
DREAMING TO FLY HIGH UP SUNGWO HITECH,

WE ARE THE PROMISING FUTURE OF SUNGWO,
FULL OF HOPE AND FULL SPIRIT,
IF THERE'S A PASSION IN ALL OF US,
GREAT FUTURE WILL BE IN US,
SUNGWO HITECH FOR US TO SUCCEED,
WHERE WE CAN TRY SOMETHING
SUNGWO HITECH FOR US TO BE
IN THE WORLD PLACING US UP HIGH,
MUCH HIGHER MUCH LOWER MUCH FASTER,
FLY TO THE END OF THE WORLD,
WE ARE THE BEST GOING TOGETHER,
DREAMING TO FLY HIGH UP SUNGWO HITECH,

여름의 문턱에서 한국을 만나다



아른 아침, 기장문화예절학교에 도착

멕시코법인 교육생 한국방문

멕시코 페스케리아(Pesqueria) 지역에 2014년 10월 설립된 멕시코법인의 현지 직원들이 본사를 찾았다. 세계 각지에 진출해 있는 해외법인 현지 직원들을 위한 '현지교육생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멕시코법인의 교육생 90여 명은 다섯 차례에 걸쳐 한국 본사를 방문해 교육을 받게 된다. 12주 동안 업무역량 강화교육을 받으면서 한국 투어와 문화 체험의 기회도 가진다. 1차 교육생 13인은 4월부터 본사에 머물며 자신이 몸담은 기업과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면서 현지법인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시종일관 '낯설지만 낯설지 않은 한국'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들의 눈빛은 흥미롭게 빛났다.

한국 예절의 시작은 인사에서부터



5월 23일 이른 아침, 기장문화예절학교의 한 교실에 들어서자 스페인어가 교실
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교육생들은 신발을 벗어놓는 방법부터 낯설다. 하지만 한 가지
라도 놓칠세라 집중하는 모습이다. 한국의 좌식문화와 신발을 벗는 문화는 해외법인 직원들에겐
다소 생소하다. 신기해하면서도 위생적이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인다.

인사를 할 때 허리를 45도 숙이는 인사법부터 작은 절과 큰절, 다양한 인사법을 배워보기도 했다. 큰절을 할 때 무릎을 꿇어
엉덩이를 발에 갖다 대는 것이 어려워 끄덕거리는 교육생부터 태어날 때부터 한국인이었던 것처럼 능숙한 교육생도 보인다.
다음은 한복을 입어 본다. 처음 보는 한복이 신기할 수밖에 없다. 한복에 여자 색과 남자 색이 구분되어 있느냐는 질문을
하는 교육생도 있었다. 설명에 이어 각자 한복을 입어보는 시간, 바지를 한껏 추켜올려 대님을 묶는 자세가 썩 '한국인'스럽다.
13명이 모두 한복을 갖춰 입자 이번엔 기념촬영을 하느라 분주해졌다. 서로 사진을 찍어주며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선반에
놓여있던 포졸모자와 사대부들의 갓을 써보고 싶다고 요청한 교육생도 있었다. 포졸 모자와 갓이 제 것인 양 잘 어울렸다.



포졸 모자와 갓으로 멋을 냈어요



신명나는 자진모리장단으로 '흥' 대방출

아니! 혹시 한국사람 아닌가요?



한바탕 축제가 시작되기 전



에헤야 디아~ 자진방아를 돌려라~

예절교육과 한복 체험 후에는 사물놀이(징, 북, 장구, 쥘리) 체험이 이어졌다. 각자 마음에 드는 악기 한 가지씩을 골라 잡았다. 북과 장구가 단연 인기였다. 그리고 채를 잡는 것에서 '덩더꿍 덩~', '깡 깡 개깡~' 등 사물장단 가락을 익히는 것까지. 강사의 시범을 보고 곧잘 따라 하고, 신나는 가락에 신명나게 어깨를 들썩였다. 쉬는 시간에도 각자 배웠던 가락을 연습하며 집중했다. 장단이 점차 빨라짐에 따라 분위기도 함께 고조되어갔다.

"OH! YEAH~" 교육생들의 구성진 리액션은 전문 방청객들 호응을 방불케 했고, 강사도 더욱 신이 났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신명은 쉬 가라앉지 않았다. 강사와 한데 어울려 어깨춤을 추고, 장구를 치고, 북을 등등 울렸다. 그러다 멕시코 전통 노래가 우리 가락에 얹히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흥과 한이 담긴 한국의 전통 가락과 장단, 멕시코 전통 노래는 분명 이질이었다. 하지만 들은 묘하게 융화되어 한바탕 축제가 되었다. 수업을 진행한 양정아 강사는 멕시코인과 한국인의 '흥'이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놀라워했다. 특히 멕시코법인 교육생들의 '흥에 겨운 흥'에 두 번 놀랐다는 후문도 있었다.



형형색색 아름다운 용궁사에서



광안리 바다 내음을 느끼며 전력질주!

부산, 어디까지 가봤니?

용궁사로 이동한 교육생 13인. 이를 뒤가 석가탄신일이라 절에는 사람들이 넘쳐났다. 굽이굽이 깎아지른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자 탁 트인 바다와 용궁사의 모습이 보였다. 용궁사는 전국에서도 몇 안 되는, 바다가 보이는 사찰로 유명하다. 교육생들은 북을 가져다준다는 불상을 쓰다듬어 보기도 하고, 햇살이 부서지는 눈부신 바다와 사찰 모습을 각자 사진에 담아보기도 했다. 용궁사는 멕시코 교육생들에게는 다소 이국적인 모습으로 투어 중 가장 좋았던 장소로 꼽혔다.

멕시코법인의 교육생들은 한국 본사에서 다양한 체험을 했다.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만 그들이 교육을 마치고 멕시코로 돌아갔을 때 한국 본사에서 받은 감명과 울림을 어떻게 에너지로 변환시킬지 궁금해지는 순간이다.

SPECIAL INTERVIEW

한국에서의 잊지 못할 추억을 가득 안고 떠난 멕시코법인 1차 교육생들. 그중 가장 반짝이는 눈으로 '현지 교육생 교육프로그램'에 임했던 EDGAR(에드가르), CARLOS(카를로스), ARISTOTELES(아리스토텔레스), FELIPE(펠리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DESARROLLO |
EDGAR
개발팀 |
에드가르



CALIDAD |
CARLOS
품질팀 |
카를로스



TÉCNICA DE PRODUCCIÓN |
ARISTOTELES
생산기술팀 |
아리스토텔레스



MATERIAL |
FELIPE
자재팀 |
펠리페



Q ¿HAY ALGUNAS PALABRAS QUE SEPAS EN COREANO?

¿CUALES?(한국어 중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요?)

EDGAR(에드가르) | HOLA, GRACIAS, RÁPIDO(안녕, 감사합니다, 빨리빨리)

ARISTOTELES(아리스토텔레스) | JANSAMIDA, CHOULIN ACHIMINIDA, ANNYON JASE YO, ME GUSTARÍA TENER CLASES DE COREANO(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회가 된다면 한국어 수업을 듣고 싶습니다.)

Q ¿CUALES SON LAS SIMILITUDES ENTRE LA CULTURA MEXICANA Y COREANA?(멕시코 문화와 한국 문화의 비슷한 점은 무엇인가요?)

EDGAR(에드가르) | LA COMIDA PICANTE Y CREO QUE LOS DOS SON MUY AMISTOSOS(매운 음식을 먹는다는 게 하나의 유사점이고, 두 민족 다 친절하다는 점도 유사합니다.)

ARISTOTELES(아리스토텔레스) | FESTEJOS COMO DÍA DE LOS PAPAS (SOLO QUE EN MÉXICO ES POR SEPARADO), DÍA DEL MAESTRO, RESPETO HACIA LOS MAYORES (멕시코는 아버지의 날과 어머니의 날이 분리되어 있지만,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있는 것과 웃어른을 공경하는 점은 매우 닮았습니다.)

Q ¿QUE LUGARES MAS INOLVIDABLE PARA TI EN ESTE VIAJE? ¿POR QUE?(투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정과 이유는요?)

CARLOS(카를로스) | LA ESCUELA DE CORTESÍA COREANA, PORQUE CONOCIMOS SUS VESTIDOS TRADICIONALES Y SU MÚSICA TRADICIONAL Y PARTICIPAMOS DE ESO (한국 문화예절학교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의 전통 의복인 한복을 직접 입어보고 경험했습니다. 사물놀이 체험에서는 한국의 전통악기를 직접 연주해보며 한국 문화에 대해 조금이나마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ARISTOTELES(아리스토텔레스) | EL QUE MÁS ME GUSTÓ

FUE LA PLAYA DE GWANGANRI, PERO EL MÁS INOLVIDABLE ES EL EDIFICIO DE SUNGWO HITECH, EL MOTEL, PORQUE ES DONDE PASÉ LA MAYOR PARTE DEL TIEMPO(투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광안리 해수욕장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잊을 수 없는 것은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성우하이텍과 숙소입니다.)

Q ¿DESCRIBA LO QUE SIENTE HOY POR VIAJE DE FABRICA DE SUNGWO HITECH?(성우하이텍 본사와 기 타 사업장들에 대한 느낌은 어떤가요?)

EDGAR(에드가르) | ES MUY ÚTIL PARA NOSOTROS YA QUE PUDIMOS CONOCER LOS PRINCIPALES PROCESOS DE SUNGWO HITECH(성우하이텍의 주요 공정들을 볼 수 있어서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CARLOS(카를로스) | ESTOY CONTENTO POR HABER CONOCIDO LOS PROCESOS Y LAS INSTALACIONES Y SABER LO IMPORTANTE QUE ES LA EMPRESA EN LA INDUSTRIA AUTOMOTRIZ(본사에서 다양한 기계장비 및 공정에 대해 배웠고, 자동차산업 분야에서 우리 회사의 중요성에 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FELIPE(펠리페) | LA PLANTA DE SEOCHANG Y LA PLANTA DE COIL CENTER, LA PRIMERA POR LA CANTIDAD TAN ALTA DE ROBOTS Y LA SEGUNDA POR LA PRENSA DE 3700TONS, EN MÉXICO HAY MÁS TRABAJADORES Y EN COREA MÁS ROBOTS, EN COREA LAS PLANTAS ESTÁN MUY LIMPIAS Y HAY MUCHA LUZ (ILUMINACIÓN) (서창공장과 코일센터가 가장 인상적입니다. 로봇의 수와 높이에 놀랐고, 3700톤 프레스가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과 멕시코 현장의 다른 점은 한국은 로봇이 나 기계의 사용이 많은 반면 멕시코는 인력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현장은 매우 깨끗하고 조명이 잘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고의 품질과 소통을 위한 노력으로
현지화에 성공한

중국 **염성성우**의 힘찬 발걸음

The Powerful Step of
Sungwoo Hitech Yancheng, China,

Achiever of Localization Based on
Best Quality and Effort for Communication

China



품 회사의 일원이라는 자부심과 신념을 가지고 더 좋은 품질과 더 높은 생산성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최고의 품질로 확보한 경쟁력

2006년 설립된 성우과기기자부건(염성)유한공사(星宇科技汽车部件(盐城)有限公司, 이하 염성성우)는 성우하이텍의 여섯 번째 해외법인이자, 중국에서의 세 번째 해외법인으로 강소성 염성시 염도구에 위치하고 있다.

동풍열달기아기차유한공사(东风悦达起亚汽车有限公司)와 함께 동반진출을 한 지 올해로 10년째, 1,5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염성성우는 염성에서도 가장 큰 차체 부품 회사로 자리 잡았다. 염성성우의 주요 고객은 동풍열달기아를 꼽을 수 있다. 염성성우는 고객만족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과 실천으로 최고의 품질 달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직원들의 노력으로 2012년도에 동풍열달기아로부터 '우수협력사상'을 수상하였고, 2013년 1월에는 '품질 5-STAR' 달성이라는 성과를 일구어냈다.

2014년 3월부터는 품질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실시간으로 품질문제를 점검하여 생산과 품질 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염성성우의 직원들은 염성을 대표하는 차체 부

직원 복지 향상과 현지화를 위한 노력

염성성우는 설립 당시부터 직원들의 만족도 향상과 조기 현지화를 위해 복리후생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직원들의 건강과 여가활동 편의 증진을 위해 농구장, 탁구장, 헬스장 등을 갖추고 업무시간 외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국에서 가장 큰 명절인 춘절(春節) 연휴기간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여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도록 지원하고 있다. 5월에는 직원의 사기 진작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전 직원들의 가족들이 함께하는 야유회를 실시한다. 바쁜 일상에서 탈피하여 가족들과 새로운 곳에서 좋은 경지도 보고 맛있는 식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진다. 매년 6월에는 무석성우 직원들과 '한마음등반대회'를 개최한다. 평소에 자주 볼 수 없었던 무석성우 직원들과 등산을 하면서 교류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이다. 이밖에도 장기근속자 중 전년도 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선발하여 본사 방문 및 한국 관광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국 현지 직원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도록 하고 본사의 우수사례를 알리고 자긍심을 일깨우는 중



1



2

3

1 매년 5월, 직원의 사기 진작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전 직원들의 가족들이 함께하는 야유회(Every May, employees and their families can participate in a company picnic, a morale booster for improving communication among employees) 2,3 염성성우의 주요행사인 농구대회와 볼링대회(Sungwoo Hitech Yancheng's major event, basketball tournament and bowling tournament)

은 프로그램이 되고 있다. 또한 매년 12월에는 직원들의 업무 실적 평가를 통하여 우수사원을 선발하고 등급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

나눔과 소통으로 이어가는 기업문화

중국에서 근무한 지 10년을 넘긴 이정해 총경리를 비롯하여 주재원들은 현지인들과의 소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매주 1회 총경리 주관으로 현지 경리급 직원들과 업무회의를 진행하여, 일방적인 업무지시가 아닌 의견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회사의 미래를 위한 방법을 직원들과 함께 고민하며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노조와 같은 중국공회위원들과 직원들의 복지, 임금,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화의 장을 주기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연말에는 부서별 워크숍을 실시한다.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한 해 동안 일군 업무실적과 내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부서별 업무교류의 시간이다. 더불어 1년 동안 수고해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연말 회식으로 한 해를 마무리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염성성우를 염도구에서도 손꼽히는 차체 부

품 기업의 반열에 올려놓았고, 염성성우는 지방 정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우수한 한국계 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염성성우는 그 명성에 맞게 염도구 지역 발전을 위해 각종 기부금과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매년 기탁하는가 하면 지역 행사에도 아낌없는 후원을 하고 있다.

변화와 혁신으로 준비하는 새로운 10년

중국의 자동차 산업은 과거 10년간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해외 완성차 업체를 자국으로 불러들여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펼친 결과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 되었지만, 2014년부터 성장률에 제동이 걸리면서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중국 자동차 시장의 풍파 속에서도 염성성우의 전 직원들은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는 염성성우의 2015년은 '최고의 품질만이 최고의 고객감동'이라는 목표를 되새겨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처럼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다지기 위해 염성성우 전 직원들은 오늘도 값진 땀방울을 흘린다.

Competitiveness from Best Quality

Sungwoo Hitech Yancheng(hereafter "Sungwoo Yancheng") was founded in 2006 at Yandu District in Yancheng, Jiangsu as the 6th foreign corporation and 3rd Chinese branch of Sungwoo Hitech. After 10 years in China with DYK•Dongfeng Yueda Kia Motors, Sungwoo Yancheng, a company with 1,500 employees, becomes the largest automotive body parts company in Yancheng. DYK•Dongfeng Yueda Kia Motors is one of the key accounts of Sungwoo Yancheng. As a result to consistent quality improvement for best quality and customer satisfaction, Sungwoo Yancheng won the 'Best Partner Award' from DYK•Dongfeng Yueda Kia Motors in 2012 and the '5-Star Quality' in January, 2013.

Since March, 2014, it has managed the quality management team to monitor product quality in real time and to manufacture products with competitive quality in competitive time period. The employees feel proud and responsible for being members of Yancheng automotive body parts representative company, and are constantly striving for better quality and higher productivity.

Employee Welfare Improvement and Localization efforts

Ever since its establishment, Sungwoo Yancheng has spared no effort to offer good company benefits for employee satisfaction improvement and early localization. Basketball courts, table tennis rooms, and fitness centers were made available to everyone to be freely and conveniently used after business hours for their health and leisure. A bonus is also provided for the Chinese New Year, the most important holiday in China, to allow all employees to spend time with their families. Every May, employees and their families can participate in a company picnic, a morale booster for improving communication among employees, escape from the ordinary, and have a great time with beautiful scenery and delicious food. Every June, there is 'The Climbing Competition for Unification', an event for communication between Sungwoo Yancheng employees and Sungwoo Wuxi employees who had not much opportunity to meet each other. Also, long-term employed people who have remarkable achievements can have an opportunity to visit the headquarters and to tour Korea. It is a very good program to allow Chinese employees working in Korean company to experience Korean culture, to understand the best cases of headquarters, and to feel proud of being member of the company. In December, the company selects

outstanding employees based on job performance evaluation and offer them bonuses by rating for motivation.

Company Culture Based on Sharing and Communication

Lee, Jeong-Hae, the general manager who has worked in China for more than 10 years, and other resident employees have consistently strived for communication with locals. The general manager holds meeting with local managers for a week and exchanges opinions with them rather than giving unilateral orders. He also positively accepts other employees' opinions to solve problems, to find solutions for the future of the company, and to develop the company with them. Sungwoo Yancheng also holds regular meetings with the members of China Trade Unions, the labor union of China, to improve employees' welfare services, salary, and labor conditions. There are year-end departmental workshops for presenting the yearly work performance and business plans for the next year in a pleasant atmosphere. Employees can close the year with the year-end dinner to reward their services the whole year.

These efforts have led Sungwoo Yancheng to be one of the best automotive body parts companies, and to be recognized as an outstanding Korean company by the Chinese local government and other related organizations. Building a strong reputation, Sungwoo Yancheng has made donations for improvement of Yandu District and needy neighbors and supported various local events every year.

New Future 10 Years Based on Changes and Innovation

As a result of enthusiastic invitation of foreign complete car companies and investment attraction, the auto industry in China has made a great progress in the last 10 years. These efforts offer the world's largest automobile market to China. Eventhough the market growth rate has slowed down and the sales have decreased since last year. Sungwoo Yancheng employees should never be afraid of changes and innovation, even in the stormy billows of Chinese automobile market with fierce competition. For 2015, the 10th anniversary of its establishment, Sungwoo Yancheng will prepare its new future 10 years based on the reconsideration of its goal, 'the best quality is the only way for the best customer satisfaction'. As the saying goes, "crisis is opportunity." All employees of Sungwoo Yancheng are giving their best effort to establish a foothold for better future without being complacent. 

중국에 가면

염성도 있고, 무석도 있고

WHEN YOU VISIT TO CHINA, YOU CAN SEE THE YANCHENG AND WUXI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소금의 도시, 염성

염성(盐城)은 진(晉)나라(기원전 221년~206년) 때 설치된 현(縣)으로, 지금의 강소성(江蘇省) 부녕현(阜寧縣) 동남쪽에 자리 잡고 있다. 염성은 한국인에게 친숙한 도시이다. 우리나라 제주도와 비슷한 위도라, 지도에서도 금세 찾을 수 있다. 기후도 한국 남부와 비슷하다.

소금은 염성의 토대이자 영혼

염성은 명실상부 염(鹽, 소금)의 도시다. 5~6천 년 전의 신석기 시대부터 염부(鹽夫)들이 이 지역에서 소금밭을 터전으로 염성의 상고문명을 창조해왔다. 선민들은 바다와 가까운 지형적 이점을 이용하여 바닷물로 소금을 얻어냈다. 기나긴 세월 동안 염성의 소금 생산은 기술, 생산량, 품질 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염성의 바다 소금 문화는 염성의 토대이고 영혼으로 자리 잡고 있다.

‘동방의 습지’라 불리는 아름다운 도시

염성은 강소성에서 가장 긴 해안선과 넓은 해역 면적을 자랑하고, 끝없이 이어지는 해안 습지가 잘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중국의 동쪽 해안선을 따라 남북으로 엄청난 크기의 갯벌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아시아 최대의 습지로 가히 ‘동방의 습지’라는 칭호가 아깝지 않다. 천혜 자연을 태고의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염성의 사계절은 그 어느 도시보다 눈부시다.



유구한 역사의 숨결을 간직한 관광도시, 무석

중국 무석(無錫)은 6천 년 전 선사시대의 거주와 농경 흔적이 남아있는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도시이다. 농산물과 수산물이 풍부해 어미지향(魚米之鄉)이라고도 불리는 풍요로운 도시이자 현재 전자, 기계공업분야에서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공업 도시이기도 하다. 태호를 중심으로 명승고적, 풍부한 자연, 관광 자원으로 중국 10대 우수 관광도시 중 하나가 되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소금의 도시, 염성
(Yancheng, the City of Salt with Harmony Between Nature and Humans)

삼국지 속으로 - 삼국성(三國城)

태호반에 있는 이곳은 삼국성, 수호성(水滸城), 당성(唐城)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1993년 중국중앙방송에서 방영한 <삼국연의>의 촬영장소다. 성내에 한(漢)나라의 오왕궁, 감로사, 칠성단, 봉화대 등 수십 개의 대형세트와 20여 개의 선박 등을 그대로 재현해 놓아 마치 옛날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게 한다.

태호를 빼고 무석을 논하지 마라! - 태호(太湖)

강소성과 절강성 사이에 걸쳐 있는 태호는 길이는 68km, 폭이 56km로 전체 면적이 2,200㎢에 이른다. 옛날에는 바다였으나 양자강 어귀의 삼각주가 발달함에 따라 형성된 담수호이다. 광활한 크기만큼이나 수산물도 풍부해서 무석을 수산물로 유명한 도시로 만들었으며, 그에 못지않은 유려한 경치로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1



2



3

1 태호는 광활한 크기만큼이나 유려한 경치로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Lake Taihu provides various tourist attractions such as beautiful landscape.) 2 염성에는 미록과 두루미 등을 보호하고 있는 국가급자연보호구가 있다.(There is a national natural reserve for various wild animals including deer, elks, and red-crowned cranes.) 3 영산대불은 중국에서 제일 높은 거대한 불상으로 꼽힌다.('Giant Buddha of Lingshan' is the tallest and largest figure of buddha in China.) 4 현재 삼국성은 각국의 영상 및 관광 등 복합문화여행테마를 갖추어 놓고 있다.(Today, The Three Kingdom City has a complex theme with culture and tourism for films and tourists all over the world.)

중국에서 제일 높은 불상 - 영산대불(灵山胜境)

영산대불은 높이 88m의 크기로 사천성의 낙산대불과 자주 비교되는데, 낙산대불보다 17m가 더 높다. 대불 아래의 삼층 연화좌까지 합하면 101.5m로, 중국에서 제일 높은 거대한 불상으로 꼽힌다. 영산대불은 불경에 묘사된 석가모니의 32상에 의거해 형상화된 것으로 자애롭고 미소를 머금은 얼굴을 비롯해 전체의 모습이 위엄과 자비,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불상의 몸과 연화좌는 전부 청동반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용된 동의 총량이 7백여 톤에 달한다. 이 불상은 1997년 11월 15일, 세상에 정식으로 소개되었고, 불상 아래 고(古) 사찰인 상부사를 중건하기도 했다.

Yancheng, the City of Salt with Harmony Between Nature and Humans

Yancheng, a district originally established in Jin dynasty (221~206BCE) and lying to the southeast of Funning in Jiangsu, is a city Koreans are familiar with. It is located at similar latitude with Jeju Island and has similar climate with the southern part of Korea, so Koreans can easily find the city on a map.

Salt, the Foundation and Spirit of Yancheng

Yancheng is the city of salt. Over 5~6 thousands years ago, the neolithic salt men created Chinese ancient civilization of Yancheng based on the salt fields in this area. People used the geographical benefits of Yancheng, an area close to the beach, and produced salt from seawater. The name was changed into Yancheng later. For a long time, Yancheng has been the largest salt producer with the best salt quality and production technology. The sea salt culture is the foundation and spirit of Yancheng.

Beautiful City Entitled 'Wetlands of the East'

Yancheng is famous for the longest beach in Jiangsu, wide areas of sea, and well-preserved endless coast wetlands. The extremely large mud flat in Yancheng running from north to south along the east coastline of China is the largest wetlands in Asia enough to be entitled "Wetlands of the East". The four seasons in Yancheng, city of ancient mysteries, a gift of nature, is more beautiful than any other cities in the world.

Wuxi, a Tourist City with Breath of Rich History

Wuxi is a prehistoric Chinese city with 6,000 year old artifacts of human habitation and farming. It is not only a fertile city rich in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enough to be called a Gourmet Village(yúmǐzhīxiāng in Chinese) but also an industrial city which has made outstanding advances in machine industries. Wuxi has become one of the 10 outstanding Chinese tourist cities with abundant natural and tourism resources including places of natural beauty and historic interest around Lake Taihu.

Into the Records of the Three Kingdoms – The Three Kingdom City

Wuxi, the lakeside city near Lake Taihu, is divided into the Three Kingdom City, the Waterside City, and Tang Dynasty City. It is famous as the filming location of (The Three Kingdoms), the television series produced by China Central Television in 1993, and people can feel like going back in time through visiting the movie set with dozens of Han dynasty's relic replicas including Palace of Wu Dynasty, Temple of Dew, Seven-Star Altar, beacon mounds, and 20 old ships in the city.

Do Not Mention Wuxi Without Lake Taihu! – Lake Taihu

Lake Taihu, the lake between Jiangsu and Zhejiang, is 68km in length, 56km in width, and 2,200km² in area. It once was sea, but became a freshwater lake due to the development of a delta at the mouth of Yangtze River. This extensive lake with rich aquatic life not only makes Wuxi famous for various aquatic products but also provides various tourist attractions such as beautiful landscape.

The Tallest Figure of Buddha in China – Giant Buddha of Lingshan

The Giant Buddha of Lingshan is 88m high and 17m taller than the Giant Buddha of Leshan in Sichuan, the Buddha's figure commonly compared with the Giant Buddha of Lingshan. The total height of the Giant Buddha and the three-story lotus-shaped pedestal is 101.5m, and it makes it the tallest and largest figure of buddha in China. The Giant Buddha of Lingshan is a figure based on 32 images of Gautama Buddha in the Buddhist scriptures, and makes people feel the dignity, mercy, and stability of Buddha from its appearance including the face with a benevolent smile. The figure and the pedestal were made of about 700 tons of cooper. It was officially introduced to the world on the 15th day of November, 1997, and Xiangfu Temple, an old temple under the figure, was reconstructed. 🌈



‘내일을 위한 혁신’을 그려내다



성우하이텍 지사공장을 찾아서

살여가는 세월의 더께만큼 안정감과 경륜이 묻어나는 사업장, 바로 성우하이텍 지사공장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숙련된 손길에는 성우하이텍의 어제를 지켜왔고 내일을 창조한다는 자부심
과 긍지가 가득하다. 100년 기업을 만들어가는 조용한 혁신의 현장, 지사공장을 다녀왔다.



**작지만
강하다**

지사공장은 2009년 준공 이래 성우하이텍의 주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성우하이텍 내에서 경차 아이템만을 생산하는 유일한 사업장이다. 자부심도 남다르다. 창업 초기

성우금속 시절의 확장동에서부터 1989년 다대포로, 2009년 지사로 확장 이전을 거듭하면서 경차 아이템만을 꾸준히 생산해왔다는 자부심은 흔들림 없이 계속되고 있다.

성우하이텍의 여타 사업장의 주 고객사가 현대기아자동차인 것에 비해 지사공장은 한국지엠(이하 GM)과 르노삼성자동차(이하 RSM)가 주 고객사이다.

한편, 지사공장에는 시범 적용되는 것들이 많다. 2009년 지사로 이전하면서 성우하이텍 내에서는 처음으로 트랜스퍼 프레스(Transfer Press)를 도입했다. 소물류 아이템의 생산량 향상을 위해서였다. 도입 이후 작업시간도 줄고, 투입 인원도 줄었다. 생산효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량생산을 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 섰다. 이후 다른 사업장에도 설비를 갖추게 되었다. 2014년 지사공장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도 성우하이텍으로서는 시범적인 것이었다.

지사공장은 규모가 작은 만큼 적은 비용으로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신속히 개선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지사공장은 말하자면 성우하이텍 내의 기준점인 셈이다. 지사공장을 '작지만 강하다'고 일컫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품질 혁신의
최전선,
이상 무(無)!**

지사공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품질'이다. 품질이 보장되면 거래는 원만하게 이루어진다. 신뢰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이다. 지사공장이 GM으로부터 품

질 관련 상을 여러 차례 수상한 것으로도 품질력은 증명된다. 특히 올해부터 양산되고 있는 신형 스파크(M2XX)는 주 3회 CMM(Coordinate Measuring Machine) 측정을 통해 지속적인 품질개선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GM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완성차 B.I.W(Body In White) 골격 DATA와 CMM DATA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M2XX B.I.W 정도 향상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지사공장은 GM의 품질시스템인 QSB+(Quality System Basic Plus)와 RSM의 품질시스템인 ASES(Alliance Supplier Evaluation System) 인증을 모두 획득했다. 생산 현장 한편에는 QSB+와 ASES 현황판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매일 아침마다 이 현황판을 보며 사무직과 공정책임자 모두 현장에서 함께 머리를 맞댄다. 품질 혁신을 위해 전 직원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나’ 아닌
‘우리’가 되어**

지사공장은 한 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른 사업장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에 속하기 때문이다. 지사총괄팀 내에 생산, QC, 자재, 영업 등이 그룹화되어 있다. 그룹별로

적게는 1명이 속한 그룹도 있다. 사업부장, 공장장, 팀장으로 이어지는 조직 구조도 단순하다. 여기서 오는 이점은 예상외로 많다. 인원이 적은 만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의 100% 이상을 발휘해야 자신이 맡은 업무를 끝까지 완수해낼 수 있다.

지사공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책임감 있게, 각자 권한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모토로 삼으며 일한다. 그야말로 일당 삼백의 직원들은 업무효율도 높다. 또한 공정책임자들과 사무직 직원도 서로가 서로를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견인한다. 그만큼 지사공장은 촘촘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형

성하고 있다.

지사공장은 장기근속자가 가장 많은 사업장으로도 꼽힌다. 1989년 학장동에서 반으로 나뉘어 다대포와 정관으로 이동하면서 다대포에는 비교적 장기근속자들이 많이 근무하게 되었다. 그것이 지사공장으로 이어져 현재 지사공장은 평균 근속연수 15년에 빛나는 사업장이 되었다. 초창기부터 일했던 고참 직원이 상당수 포진돼 있는 것이다.

장기근속자들은 최근 입사한 젊은 직원들과 ‘나’ 아닌 ‘우리’가 되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도, 힘들수록 서로에게 힘이 되려 하는 것도, 현장에서 발생 하는 문제를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하려 하는 것도, ‘나’가 아닌 ‘우리’가 먼저이기 때문이다. 성우하이텍을 지켜온 그 자부심과 의지로서 지사공장은 오늘도 ‘내일을 위한 혁신’을 그려가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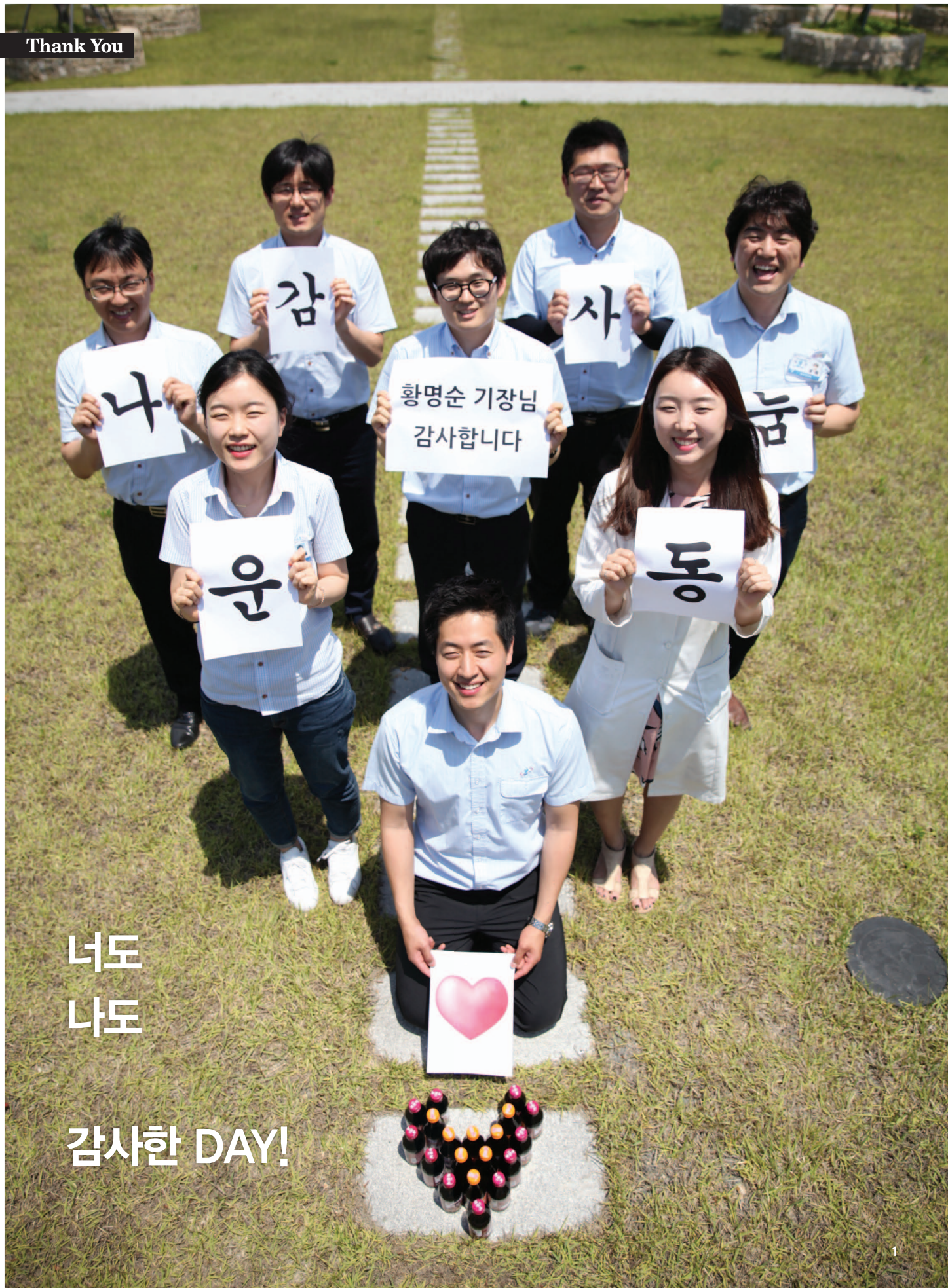
1 2014년 지사공장 지붕에는 친환경 사업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되었다.

2 2009년 성우하이텍 내에서는 지사공장에 처음 도입된 트랜스퍼 프레스(Transfer Press)

3 지사공장은 장기근속자가 가장 많은 사업장으로도 꼽힌다.



Thank You



너도
나도

감사한 DAY!

1 박성용 사원의 50감사에 보답으로 황명순 기장이 음료수를 보냈으며 이에 박성용 사원은 또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 5감사 카드를 적고 있는 이한영 사원 3 박영배 조장이 아내에게 보낸 '100가지 감사' 족자!



본격 '실천' 단계에 돌입한 감사나눔운동

3월 23일 '감사나눔운동' 선포식에서 '나'와 '가정'과 '우리 회사'의 행복을 위해 각 부서에서 감사나눔운동을 이끌어갈 '감사불씨' 115명을 선발했다. 감사불씨들은 5월 14일부터 각 지역별로 나눠 총4차에 걸쳐 양성교육에 참여했다.

현재 성우 감사나눔운동은 추진 4단계 중 3단계인 실천 단계에 본격 돌입했다. 감사불씨들은 전사적으로 감사나눔운동을 전파하기 위해 곳곳에서 활동 중이다. 가까운 동료들에게는 '5감사 카드'로 마음을 전하고 업무 특성상 자주 만나지 못하는 성우인들과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감사불씨를 나누고 있다. 감사나눔운동은 직원들과 소통 기회를 넓혔고, 긍정 마인드와 행복지수를 상승시키고 있다.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점점 커지는 감사불씨

소리 소문 없이 활동 중인 감사불씨를 만나 생생한 감사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품질보증팀 공정QC 박영배 조장**은 감사불씨 교육 중에 '100감사'를 아내에게 보냈다. "100감사를 통해서 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사실 마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말과 글이라 생각합니다. 아내에게 제 마음을 담아 진심을 전했습니다." 이에 아내는 박영배 조장에게 '50감사'로 보답했다. 거실 한편, 가장 잘 보이는 곳에 100감사 족자와 아내에게 받은 50감사를 걸어두었다.

교육 이후에도 그의 감사활동은 계속된다. "저는 문자 끝에 '감사합니다'를 항상 붙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감사불씨가 활활 타오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집에 100감사 족자를 걸어둔 것처럼 말이죠." 박영배 조장은 개인적으로 회사 측에서 만든 '감사한 DAY'로고를 프린트해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 두었다. 눈으로 봐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아무리 작은 불씨라도 어둠이 덮을 수 없듯이 박영배 조장의 감사불씨는 꺼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갈 것이다.

2013년에 입사한 **생산관리팀 이한영 사원**은 팀원들의 적극 추천으로 감사불씨가 되었다.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로 사무실 활력을 자청하던 그녀의 긍정 마인드에 불이 붙었다. 감사불씨 교육 때 사랑하는 가족에게 100감사를 보냈다. 무뚝뚝한 경상도 집안에도 감사불씨가 활활 타올랐다. 특히 어머니는 이한영 사원이 보낸 100감사를 외울 정도로 많이 읽었다고 한다. 어머니도 적극적으로 가족에게 감사불씨를 전파 중이다. 퇴근하고 돌아온 가족들에게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전한다. 처음에 서툴고 어색했지만 점차 퍼지는 미소는 곧 온 집안을 물들였다. 말뿐인 감사보다는 구체적으로 'OO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느끼지 못하는 사소한 부분도 감사하고, 저 또한 감사가 습관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느낀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하자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감사나눔운동은 성우하이텍 곳곳에서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고 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어느새 새로운 조직문화로 자리 잡았다. 앞으로 감사불씨는 더욱 활활 더 타올라 것이다. 이제 감사나눔운동은 실천을 넘어 4단계인 '확산'을 향해 달려간다.



5월의 함성! 그 뜨거운 열기 속으로

5월 22일, 서창공장 전용 경기장이 뜨거워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제12회 성우하이텍 회장배 축구, 탁구, 풋살대회' 결승전이 열렸기 때문인데요. 4월 6일부터 시작해서 50여 일간 숨 가쁘게 달려온 6개 사업장이 최종 결전을 앞둔 가운데, 햇살도 유난히 강렬하고 눈부신 듯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오후 1시 반부터 진행된 '제12회 성우하이텍 회장배 축구, 탁구, 풋살대회' 결승전이 장장 4시간 동안의 치열한 각축 끝에 막을 내렸습니다. 스포츠 정신으로 똘똘 뭉친 각 사업장의 선수들은 열정을 쏟으며 각 경기장을 누볐습니다.

“우승, 놓치지 않을 거예요!”

축구 경기에서 토너먼트전 끝에 결승에 오른 두 팀은 아산생산관리팀과 아산자재지원팀. 아산 지역을 대표해 이른 시간부터 달려온 터라 두 팀 모두 우승에 목말라 있는 듯 했습니다. 이날 시험은 상대방에서 넘긴 공을 발등 찍어차기, 빗겨차기, 넘어차기 등의 현란한 기술이 자유자재로 구사된 가운데, 한발 앞선 팀워크를 앞세운 아산생산관리팀이 작년에 이어 2연패(세트스코어 2:1)를 달성했습니다.



아산생산관리팀 맹서영 주장을 만나보았습니다.
맹서영 주장님, 우승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산생산관리팀 맹서영 주장

3년 전까지만 해도 아산에서는 한 종목도 우승하지 못했는데, 작년부터 저희 축구팀이 2회 연속으로 우승해서 무척 기분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팀을 누르고 승리한 것이어서 동료애를 놓고 보면 미안한 점도 있습니다. 경기 전 팀원들에게 평소대로 열심히 하자고만 얘기했었는데, 다치지 않고 열심히 해줘 최종 우승을 차지하게 돼 고맙습니다.





“아~ 슛! 골이에요! 골~!”

풋살 경기장에서는 아산생산관리팀, 서창 개발사업부의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각 팀의 열띤 응원이 펼쳐지는 가운데 각각 5명씩 전체 10명의 선수들이 서로 뒤엉켜 치열한 볼 다툼을 펼쳤습니다. 3연패를 노리는 아산생산관리팀, 우승에 목말라 있는 서창 개발사업부. 슈팅과 혼전, 또 슈팅과 혼전, 그 결과 풋살대회 우승은 52로 아산생산관리팀에게 돌아갔습니다.

서창으로 올 때 긴장을 많이 하고 왔어요. 실력 있는 풋살 선수를 많이 영입했다는 소문 때문이었지요. 제비뽑기도 마지막 순번이라 이미 정해진 상대와 경기를 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연습은 매일 한두 시간씩 했고요, 연습을 실전처럼 했던 것이 빛을 발한 것 같습니다. 풋살경기가 도입되자마자 원년 우승부터 내리 3년째 우승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몇 년간 저희 팀이 계속 1등 하지 않겠습니까? 하하하.

아산생산관리팀 정기수 주장

2015년 제12회 디텍 회장배 족구, 탁구, 풋살대회

일시 : 2015년 4월 6일~



지사공장 최성욱 기장, 조일환 기사

일단 반갑고, 고맙습니다. 승패를 떠나서 각 사업장을 대표하는 직원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어서 그 자체가 상당히 기분 좋습니다. 우승 비결이라고 한다면, 복식 같은 경우는 서로 마음이 맞아야 한다는 것 이죠. 파트너가 조금 흔들린다 싶으면 조금 더 밀어주고 당겨주는 그런 부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재작년과 작년보다 선수들의 실력이 좋아져서 운이 좋아 이긴 것 같습니다. 이 대회가 더 활성화되어서 정말 전 직원들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집중에 집중을 더하다”

한편, 탁구 경기장의 선수들은 연습 때부터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통상 탁구공은 지름 40mm, 무게 27g인데, 에어컨의 미세한 바람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에어컨을 끌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탁구 경기는 그야말로 팽팽한 줄다리기였습니다. 그중 지사공장과 서창 보전팀/공정기술반/설비기술반이 결승에서 맞붙었는데, 단식-복식-단식으로 이어지는 경기에서 지사공장이 2세트를 먼저 따내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눈여쭙던 대회 Behind Story가 30초 후 공개됩니다

경기는 모두 끝났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뜨거웠던 5월의 서창공장 전용 경기장. 아쉽지만 다음 대회를 기약하며 폐회식을 맞이했습니다. 매년 열리는 '성우하이텍 회장배 축구, 탁구, 풋살대회'는 '서로 사랑하는 우리 회사' 문화 조성을 위해 2004년 '성우배 축구대회'로 처음 개최되었습니다. 2007년부터는 탁구 종목이 신설돼 각 사업장의 숨은 실력자들이 기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게 되었고, 이후 2013년에는 풋살 경기장이 생겨나면서 풋살 종목도 추가되어 현재 대회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그동안 성우하이텍이 수많은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성우인의 뜨거운 스포츠 정신 덕분이 아닐까 합니다. 매회, 매 경기마다 성우인들이 보여준 불굴의 투지, 끊임없는 도전정신이야말로 성우의 빛나는 역사를 이끈 원동력이었습니다. 



성우인은 스마트워크로 똑똑하게 일한다!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는 '변화와 혁신'

의욕적이고 도전적인 하대리는 오늘도 1시간 일찍 시차출근하여 스마트 FPS로 업무계획과 본부 전체의 주요 업무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오전 10시 10분부터 흘러나오는 명상의 시간에는 잠시 눈을 감은 채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고, 연이어 계획한 오전 업무를 끝낸 하대리는 같이 헬스동호회 활동을 하는 다른 팀의 전필승 과장과 옥상정원을 거닐었다.

하성우 대리(이하 하대리): 과장님. 회사에서 유연근무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걸 보니 정말 변화의 물결이 막 밀려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전필승 과장(이하 전과장): 그렇지. 많이 변했지~ 그런데 말이야, 우리 팀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워낙 업무가 많다 보니 잘 시행하지 못하고 있어. 한편으로는 이 방법이 과연 옳은 건지 의문도 들고 말이지.

하대리: 저희 팀은 유연근무를 실행하기 위해서 업무분장도 다시 하고 불필요한 업무 많이 줄였어요. 팀 분위기를 바꾸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말이지. 그 덕분에 전 이번에 업무를 핑계로 미루기만 하던 프레스금형 설계기사 자격증도 취득했어요.

전과장: 오 축하해! 우리 팀도 너희 팀처럼 개선을 해야 유연근무제는 뭐든 할 텐데 우리 팀은 나도 그렇지만 윗분들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하대리: 실행이 쉽지는 않죠. 정말 힘든 일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창의성이 없으면 경쟁에서 밀리는 시대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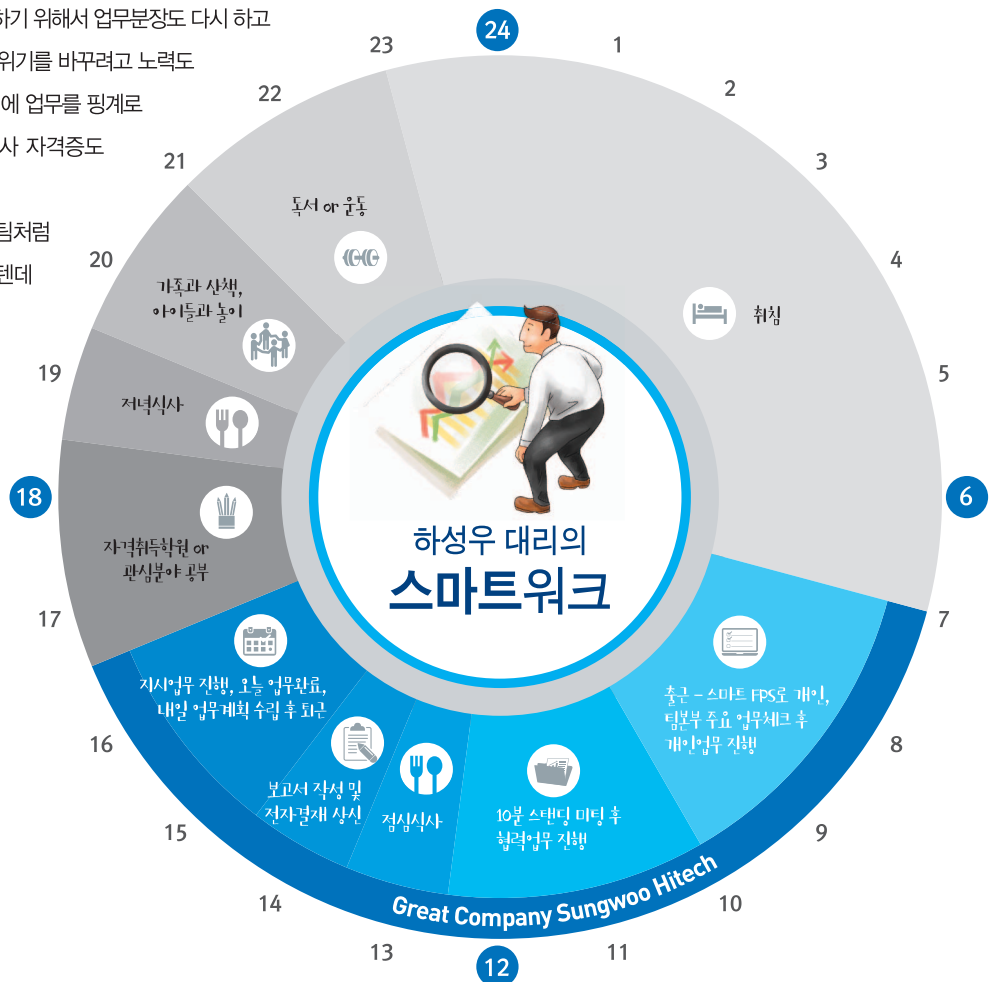
전과장: 그렇지? 안 그래도 지난번에 유연근무제 도입 설명회 할 때 인사 노무팀에서 유연근무제의 기대효과와 국내외 실시 현황에 대해 분석한 걸 보니 회장님께서 우리 회사가 100년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진짜 지금 변하지 않으면 조만간 위기가 올 수도 있어. 우리 팀도 어떻게 해서든 변화할 방법을 찾아봐야겠어.

하대리: 네, 과장님. 모두 변화를 인식하고 혁신을 추구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으니 우리 회사가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Let's go!' 하십시오. 🚀



유연근무제 (공통근무시간 6.5시간)

- 점심시간을 제외한 8.5시간 근무를 기준
- 시차 출퇴근제 (7시~10시 사이)
- 탄력근무제 (업무량이 많거나 적을 때 ±2시간)



같은 곳을 바라보라, 그리고 공감하라!

노사화합워크숍 성공적인 마무리

기업들은 끊임없는 혁신을 꾀한다.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상과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묵은 요소들을 완전히 바꿔서 새롭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조직의 변화를 위해서 우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고 명료하다. 회사와 구성원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그것을 공감하는 것'이다.

서창 조립5반
여상원 기장



아산 조립1반
현대섭 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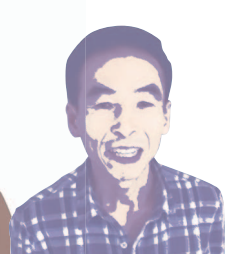
정관 자재지원반
유웅 기장



서창 설비기술반
윤수영 기사



지사 조립계
양영준 기장



혁신 리더가 된 공정책임자들의 후일담

교육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공감의 시간들을 가진 교육생들은 '나로부터의 변화'에 대한 다짐을 남겼다.

서창 조립5반 여상원 기장

회사에서 항상 열심히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막상 이런 교육장에 와서 교육을 받으니깐 나 자신이 너무 작게 보이는 느낌도 들고, 앞으로 더욱더 많이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전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이전보다 많이 업그레이드되고 알차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회사에서 추구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나가는 데 보탬이 되는 글로벌한 사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산 조립1반 현대섭 기장

교육장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일도 바쁘는데 이런 교육을 받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바꿀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료들과 함께 하면서 생각도 많이 바뀌어 갔습니다. 나 자신부터 새롭게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의욕이 생겼고, 저의 직업이나 제가 다니는 성우하이텍에 대한 자부심을 더 품게 되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정관 자재지원반 유웅 기장

이번 교육의 주제는 변화와 혁신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국내 시장을 벗어나서 글로벌 성우하이텍으로 나아가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또 막연히 편하게만 생각하던 생산라인의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둘째 날 아침 사장님께서 오셔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사장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만큼 노력을 하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한 지 12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년까지 근무를 더 해야 하는데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도종복 전무님께서도 '종말'이라는 책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 책도 읽어보고 싶습니다. 자기계발을 위해 책도 많이 보고 공부할 것이 있으면 공부도 하고, 그렇게 교육에서 배운 것들을 실천해보려 합니다.

‘변화와 혁신의 공감하는 성우하이텍’을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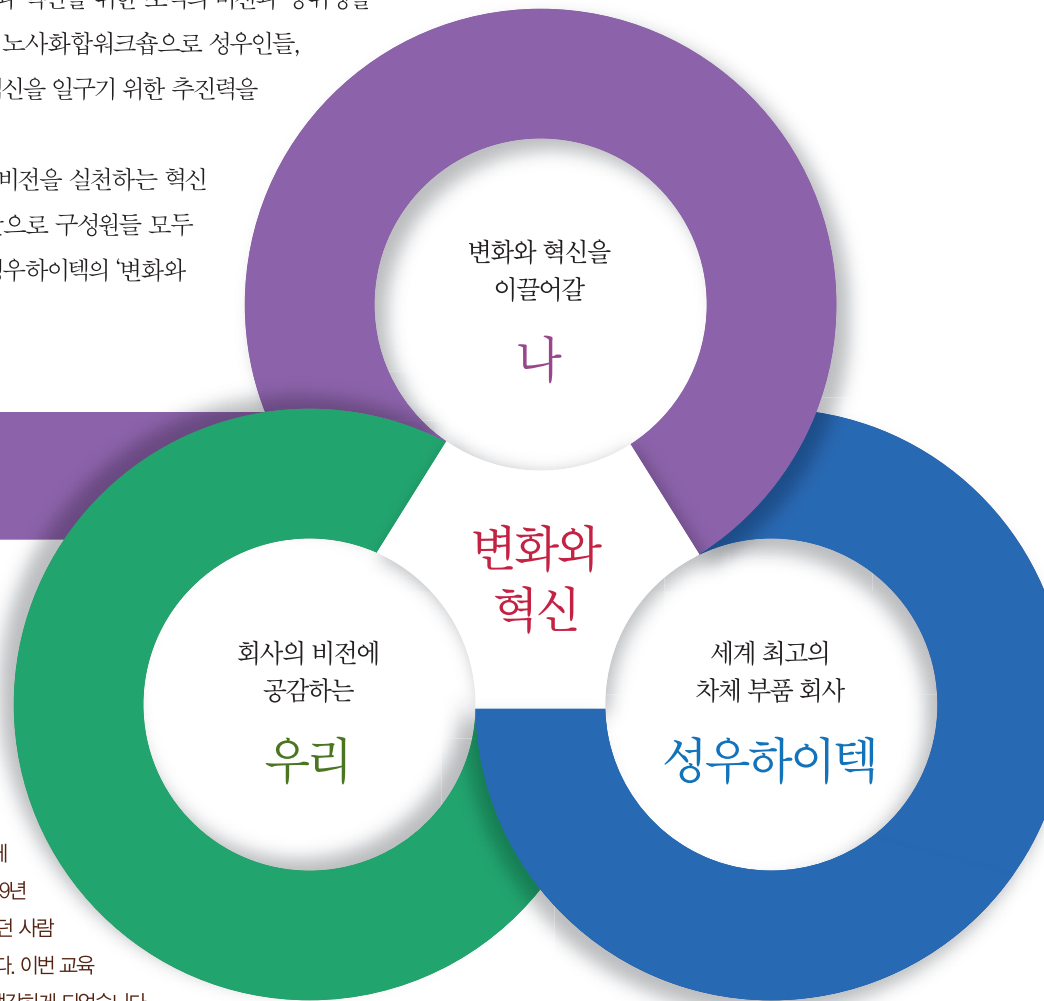
3월 16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된 공정책임자 대상 노사화합워크숍이 마무리되었다. 총 12차수로 진행되었으며, 역대 최다 인원이 참가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는 변화와 혁신의 당위성을 인식하고, 조직의 비전과 목표 달성에 맞는 구성원들의 역할과 추진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초점을 두었다.

변화와 혁신은 조직의 목표를 이해하면서 공감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이를 수 있다. 동일한 목표는 구성원들에게 비전을 공유케 하며,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어 지속적·체계적 실천을 함께해나갈 수 있게 한다.

전체 교육 과정 만족도 평균은 98%, 절반 이상의 차수가 100%의 만족도를 기록한 워크숍이었다. 그만큼 교육생의 이해도가 높았다는 의미이고, 변화와 혁신을 위한 조직의 비전과 당위성을

체득했다는 뜻도 된다. 이번 노사화합워크숍으로 성우인들, 특히 공정책임자 모두에게 혁신을 일구기 위한 추진력을 심어준 셈이다.

그들은 이제 스스로 조직의 비전을 실천하는 혁신 리더가 될 준비를 마쳤다. 앞으로 구성원들 모두가 공감하는 목표를 향한 성우하이텍의 ‘변화와 혁신’을 기대해 본다.



서창 설비기술반 윤수영 기사

제가 참가한 5차 교육에서는 아산에서도 직원들이 많이 참가했습니다. 9년 동안 회사에 다니면서 모르고 지내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회사에 대해 좀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라든지 희생정신이라든지 여러 가치를 많이 키워가고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항상 저는 제가 먼저 있고 회사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교육을 받으면서 회사가 있기에 저도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회사에 대한 마음이 좀 더 커져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자기계발도 하고 회사에 도움될 수 있는 멋진 성우인이 되겠습니다.

지사 조립계 양영준 기장

처음에 교육장에 올 때 나하고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선입관을 가지고 왔는데 막상 이렇게 교육에 임하고 보니 좋은 강의도 많고 배울 점도 많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더 사랑과 나눔을 베풀어 단체에서 정말로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화순적벽에 묻혀 시인이 되다





將遊赤壁歎有客 無酒

적벽을 유람하려는데 술 없어 탄식하네

古跡回間簫歌夜

고적을 돌아보는 사이 통소로 노래하는 밤이 되니

雀飛鳥去蒼茫洲

참새와 까마귀가 날아 가버리고 없는 창망한 섬이로구나

秋風岳陽上詩杜

추풍에 악양에서 시를 짓는 두보 같고

夕陽滌亭歸醉歐

석양에 저정에서 만취해 돌아가는 구양수 같네

虛汀八月不見人

허정(한가한) 팔월인데도 사람은 볼 수 없고

露葭蒼蒼江水悠

이슬 맞은 갈대만 창창하고 강물은 아득하네

江山何處觀之無

강산은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곳이므로

好酒嘉賓方勝遊

술 좋아하는 사람들과 놀기 좋은 곳이로세

- 김삿갓



산과 강, 그 이상의 사색

일상은 언제나 마라톤이다. 주변을 둘러볼 여유와 휴식이 필요하다. 누구나 힐링을 꿈꾸며 산과 바다를 갈구한다. 일상과 주변을 잠시 잊고 나를 돌아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때 묻지 않은 비경,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곳 화순적벽은 그 이상을 보여준다. 적벽은 시인을 만들어낸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새파란 하늘과 심심할까 띄워 놓은 듯 무심히 떠다니는 구름, 그 파란 하늘 아래 웅장히 솟아 있는 붉고 푸른 적벽, 거울삼아 적벽을 한 번 더 담아내는 적벽강, 사계절을 뚜렷이 보여주는 울창한 숲. 눈앞에 대자연이 만들어 낸 적벽의 절경에 사색하게 되면 이 모두를 만드신 것을 찾아 또 다른 여행을 가야 할까 싶다. 적벽을 종이 삼고 강물을 먹 삼아야 할 만큼 적벽과 마주한 사람은 모두가 시인이 된다. 누구나 사색하게 하니 그 어떤 곳이 이에 비할까!

빛장 열린 신비의 화순적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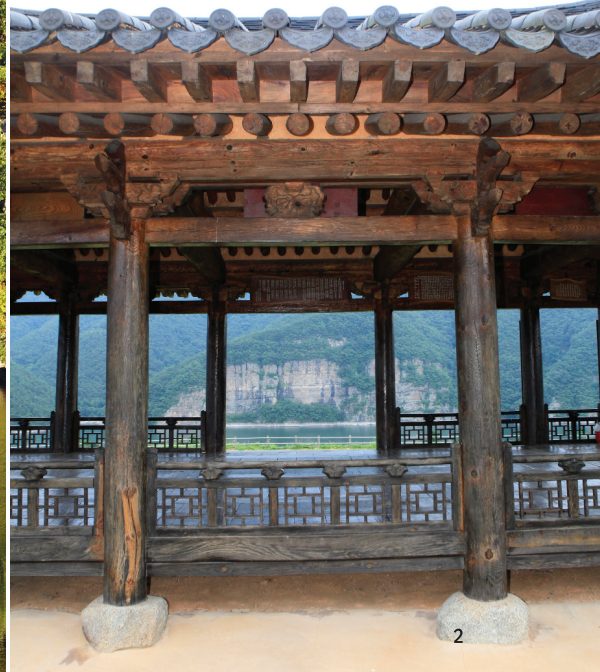
웅성산 기슭 장학리 마을의 기암괴석들과 계곡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다. 떨어지는 마음으로 적벽이 있는 이서면으로 들어섰다. 이름 모를 산새들이 지저귀며 이 나무 저 나무 사이를 활보한다. ‘동물도감이라도 가져왔어야 하나?’ 자책 중에 반가운 녀석들도 나타났다. 까투리와 그 새끼들이 줄지어 나타나 이쪽에서 저쪽으로 뛸다 사라지는 것이다. 뒤뚱거리지만 쟁쟁게 숲 속으로 사라진다. 약간은 흥분된 마음을 미소 짓게 하여 여유를 준다.

화순적벽은 상수원(적벽이 있는 동북면은 광주시의 상수원으로 쓰이고 있다.) 보호를 위해 출입이 제한된 지 30년만에 개방된 만큼(2014년 10월 개방) 주변의 울창한 숲과 경관은 웅장함과 자연미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용연정수장에서 관리하는 출입구로 들어서 얼마 가지 않아



1 강물에 반영된 적벽
2 망향정에서 본 적벽



적벽 앞에서 보는 것과는 또 다른 절경을 먼저 마주하게 된다. 거북목이다.

‘와, 우리나라에 이런 절경이 있구나.’ 하며 주변을 둘러보니 근처 숲에서 공룡이라도 나올 것만 같은 웅장함과 신비로움이 있다. 근처에 있는 북면 서유리에는 실제로 공룡화석지가 있어 오래전 실제로 공룡이 활발하게 활동하던 곳임을 증명한다. 적벽으로 향하는 길은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비포장도로 평탄길을 만들어 놓았다. 들어가는 동안 주변에 문득문득 나타나는 바위 역시 색과 모양이 특이한 점관암으로 이루어져 나무와 식물들과 어우러져 비범함을 뽐낸다.

조금 더 들어가면 적벽을 넓게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있다. 저 멀리 적벽과 망향정이 보인다. 시원한 풍경에 카메라를 들고 프레임 잡지만 사진보다 눈에 직접 담는 풍경이 더 뛰어나다. 5분 정도 더 들어가서 드디어 망향정(댐을 건설하며 수몰된 15개 마을의 후손들을 기리는 비석이 있는 곳이다.)

과 적벽이 마주한 곳에 이른다. 가까이 한 적벽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다만 댐이 들어서기 전보다 수면이 2~30m 높아져 30년 전의 높이와 웅장함에 비하지는 못하는 듯하다.

적벽은 퇴적암의 일종인 점관암이 무등산의 입석대(천연기념물 465호), 서석대처럼 주상절리 현상으로 바위가 외부로 노출되어 아름다운 절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동북댐 상류에 서 약 7km에 걸친 웅장한 절벽 경관이다.

적벽은 노루목 적벽을 비롯해 보산적벽, 청량적벽, 물염적벽을 아우른다. 보산적벽은 노루목에서 서쪽으로 600여 m 떨어져 있는 보산리의 북쪽에 있는 절벽으로 적벽 위에는 망향정과 마을 유래비, 망향탑이 세워져있다.

동북호 상류 물염정 인근에 있는 창량적벽은 높이 40m, 길이 약 100m에 이르는 절벽으로 도로를 따라 비경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 물염정 건너편에 있는 물염적벽은 일찍이 김삿갓 등 많은 풍류 시인들이 즐겨 찾던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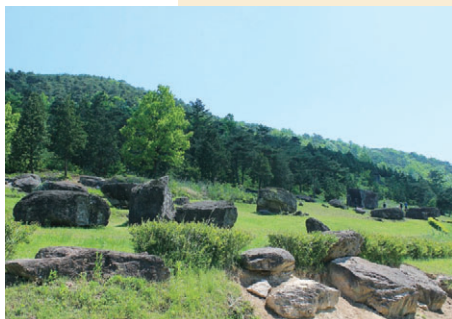
1 댐이 들어서기 전 옛 적벽 모습
2 망향정 입구
3 망향정과 이서적벽

김삿갓의 방랑을 멈추게 한 절경!

조선 10경으로 꼽혔던 화순적벽은 종종 때 유학자인 최산두가 1519년 동북에 유배되어 와서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하며 중국 양쯔강의 황주적벽에 버금간다며 처음으로 적벽이라 불렀다. 김삿갓으로 유명한 방랑시인 김병연의 방랑벽을 멈추게 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화순의 산과 물에 매료되어 3번이나 이곳을 찾았는데 1857년 화순 동북에 정착하고 10여 년 간 적벽 주변을 머물며 주옥같은 시를 남기고 동북면 구암에서 생을 마쳤다. 김삿갓은 '무등산고송하재 적벽강심사상류(無等山高松下在赤壁江深砂上流) - 무등산이 높다 하되 소나무 아래 있고 적벽강이 깊다 하되 모래 위에 흐른다.'라며 적벽의 경관을 풍자하였다.

석천 임억령(1496~1568)은 '적벽동천(赤壁洞天)'이라 불렀고, 정조 때 화순현감 이인승은 적벽동천이라는 글자를 절벽에 새겼다고 전해지는데 아동문학가 정영기 선생은 어릴적 선생님과 함께 적벽에서 직접 이 글자를 보며 도가에서의 무릉도원과 같은 뜻이라고 배웠던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지금도 붉은 글씨가 선명하다. 이렇게 자연을 그대로 간직한 절경을 볼 수 있다는 것이 큰 즐거움이지만 적벽은 개인적으로 출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단체투어로 여행할 수 있다. 꼭 화순군에서 시행 중인 적벽투어를 이용해야 하는데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며 일반인에게 개방이 되도록 한 화순군과 용연정수장의 노력이 감사할 따름이다. 🇰🇷

적벽과 함께 즐겨야 할
화순 여행지



- 세계적인 고인돌 유적지로 군내 약 2천여기의 고인돌이 분포한다. 유적지는 596기의 고인돌이 집중 분포되어 있고 자연경관마저 아름다워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 위치 : 전남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63
- 전화 : 061-379-3933



- 서성저수지 안에는 작은 섬이 있다. 소나무와 바위가 어우러져 있는데 이곳의 작은 정자가 환산정이다.
- 위치 : 전남 화순군 동면 서성리 250-6



- 고려 공민왕이 흉년적 난 때 피난 왔다가 개성으로 돌아가며 어머니처럼 자신을 따뜻하게 보호해주신 산이라 하여 모후산으로 개명하였다. 고려인산 최초 지배지로 알려져 있다. 편백(노송나무) 군락과 소나무로 조성되어 명품 산길을 즐길 수 있다.
- 위치: 전남 화순군 남면 유마리 321
- 전화: 061-379-3729

경주 현송리동 → 구 이서중학교 (구남평동) → 적벽입구 → 포도존 (적벽) → 망향정 → 문묘존 (절벽)

· 동북댐은 광주광역시민의 식수원으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후 약 30년 만에 광주광역시

와 전라남도 화순군이 상생의 공동발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화순적벽을 부분 개방하기로 상호 협의하여 2014년 10월 23일부터 개방하게 되었다.

· 이에, 많은 사진 애호가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해 화순적벽 셔틀버스를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여 4개의 적벽 중 보산적벽, 장항적벽을 관람하는 프로그램이다.

· 화순군청 홈페이지 “적벽투어” 예약서비스
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예약 가능
(<http://tour.hwasun.go.kr/cmd>)

· 운영기간 : 2015년 3월 21일 ~ 11월 29일
매주 수, 토, 일

· 운영시간 : 3회(09:30, 13:00, 15:30)

· 이용가능인원:1일(버스 4대 x 32명 x 3회)

· 소요시간 : 약 120분

Interview



한 걸음 변화하고 두 걸음 혁신하다

최근 부산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부산어묵' 열풍.
그 중심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어묵제조업체 '삼진어묵'이 있다.
3대로 이어지는 삼진어묵의 역사에는 '변화'와 '혁신'이 존재한다.
지난 60여 년간 변화와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에 어묵 열풍을 일으킨 주인공을 만나 보았다.



1 삼진어묵 2대 박종수 사장 2 1960년대 삼진어묵 초창기 시절, 직원들과 함께한 아우회 3 삼진어묵에서 최초 개발한 어묵고로케 4 어묵체험관에서는 직접 어묵 만들기과 굽기 체험이 가능하다.

아버지의 등을 바라보며 배운 '정직'

창업주 고(故)박재덕은 6·25 전쟁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1953년, 66㎡ 남짓한 판잣집에서 어묵을 만들기 시작했다. 박재덕의 가족은 어묵공장 한편에서 생활했다. 그 당시 태어난 아기가 바로 2대 박종수 사장이다. 박 사장은 태어날 당시부터 아버지의 어묵 만드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랐다.

“지금 영도공장이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께서는 어묵 공장을 시작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에서 어묵 만드는 기술을 배우셨다고 하더라고요. 먹을 것이 귀한 시절 어묵은 그야말로 별미였죠.”

설립 당시부터 '삼진어묵'은 맛있다고 소문이 났다. 먹어본 사람은 안다. '삼진어묵'의 어묵은 다르다는 것을. 비결은 간단하다. 재료를 아끼지 않고 내 가족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만든다. 단순하고 당연하지만, 이것이 창업주의 경영철학이자, 삼진어묵의 정신이다. 창업주의 정직함은 2대로 이어졌고, 3대에 닿았다.

“남는 게 없더라도 좋은 재료를 써야 한데이, 다 사람이 묵는 거 아이가”

박종수 사장은 1986년 가업을 이어받았다.

“아버지께서는 ‘재료를 아끼지 않고 내 가족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만들어야 한다.’ 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1980년대 산업화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푸드 업계에도 대기업이 등장했다. 마트나 슈퍼마켓에 대량으로 쏟아지는 어묵에 삼진어묵은 창업주의 가르침대로 '정직함'으로 맞섰다. 정직하게 만든 어묵은 그 자체로 훌륭한 영업이 되었다. 삼진어묵을 먹어본 사람들은 그 맛을 찾아 다시 매장을 방문했다. 삼진어묵에는 현재까지도 영업사원이 따로 없다. 정직하게 만든 어묵, 그리고 어묵을 만드는 직원들이 바로 영업사원이기 때문이다. 삼진어묵 직원들은 모두 자신이 만든 어묵에 자부심이 강하다.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준 직원들은 지금도 여전히 '어묵장인'으로 삼진어묵을 받쳐주고 있다.

2011년, 우리나라 최고의 현대식 수제어묵 생산라인을 갖춘 제2공장을 부산 사하구 장림에 설립했다. 제2공장은 위생적인 생산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적용해 HACCP인증을 받았다. 수요가 많아진 만큼 공장도 넓어졌고, 내부에서는 새로운 메뉴 연구·개발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가 '어묵고로케'이다.

삼진어묵의 변화는 혁신을 이끌었다.



2010년, 2대 박종수 사장은 동맥경화로 쓰러졌다. 이 소식을 들은 3대 박용준은 미국에서의 공부를 뒤로한 채 귀국했다. 어릴 적 어묵공장이 싫어 미국 유학을 떠났던 박용준은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러곤 숙명처럼 삼진어묵의 뒤를 이었다. 3대 박용준 기획실장이 삼진어묵의 재단장을 결심했을 때, 많은 이들이 삼진(三進)이란 이름을 바꿔보자고 권유했다. 고리타분하고 촌스럽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박 실장은 '삼진'을 지켰다. 옛 창업주가 자리 잡은 영도공장의 터도 지켰다. 그러곤 그 자리에 어묵 역사관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삼진을 고수한 이유는 역사와 전통을 가버릴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2013년 12월 작지만 큰, 혁신적인 변화가 삼진어묵의 새 시대를 열었다. 오랜 고민 끝에 2대와 3대가 합심해 '어묵 베이커리'를 오픈한 것이다. 어묵매장을 베이커리 매장처럼 바꾸어 빵 고르듯 쇼핑할 수 있게 한다는 생각은 단순하지만 그 누구도 시도해보지 못한 혁신이었던 것이다. 대량생산으로 값싸고 비위생적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변화시킨 곳은 1층에 위치한 공장이다. 어묵공장에 위생 시스템을 도입했고 만드는 과정을 고객들이 볼 수 있도록 오픈 주방으로 바꿨다. 매장에는 어묵 장인들과 고민하여 내놓은 60여 종의 어묵을 편하게 고를 수 있도록 진열했고, 인테리어도 카페처럼 바꾸었다. 높은 천장을 활용해 반구형 아치 모양으로 개조하고 어묵 제작 과정을 담은 벽화를 그렸다. 2층에는 어묵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어묵 역사관'을 마련했고, 어묵 만들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도 마련했다. 결과는 그야말로 대박이었다. 재단장한 지 일주일 만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어묵을 사가기 시작했다. '어묵고로케'는 만들기 무섭게 팔려나갔다. 연이어 2014년 10월에는 코레일 부산역사(驛舍)점을 오픈했다. 입점 첫날부터 단숨에 코레일유통 내에서 압도적인 차이로 매출 1위를 기록했다. 매장 규모 대비 가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삼진어묵'

'삼진어묵'의 성공으로 부산은 물론 전국적으로 따라하는 업체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황당하기도 했죠. 하지만 곧 안심했어요. 고객들의 입맛은 정직하니까요.”

많은 경쟁사들이 나타나면서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금세 자리를 되찾았다. '삼진어묵'의 맛과 정직함은 따라 하지 못했다. 자동화 라인이 많이 생겼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수제라인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반죽을 배합하는 돌절구는 아주 오래된 전통 방식이다. 자칫 힘들고, 귀찮은 일이지만 돌절구에 반죽을 하면 확실히 맛의 차이가 난다. 작은 차이가 고객의 입맛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또한 밀가루를 넣지 않고 전분을 이용해 생산할 비율을 80%까지 끌어올렸다. “고객들의 입맛은 정직하니까요.”

'삼진어묵'은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 하되, 전통은 이어가고 있다. 모든 매장에는 전통 라인과 최신 라인이 공존하게끔 만들었다. 생산성을 살리고 옛 정신을 되살리기 위한 방법이다. 프랜차이즈를 만들지 않는 이유도 여기서 온다. 어묵은 위생에 취약한 생선을 다루는 일이고, 아직은 숙련된 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영으로 철저히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단순 덩치 불리기에 급급해 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실을 다져가고 있는 중이다.

“우리의 경쟁자는 다른 어묵업체가 아니라, 베이커리입니다.”

빵집에 가면 종류가 무한합니다. 어묵이라고 못할 것도 없지요.”

삼진어묵은 현재 80여 종의 어묵 메뉴를 개발했다. 취재진이 인터뷰를 하러 간 그날도 공장 한편에서는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새로운 메뉴 개발을 하고 있었다. 모두가 스스로 모였다. 신입사원부터 30년이 훌쩍 넘는 직원까지도 그들은 모두 어묵 장인이자, 삼진어묵은 전통이 현재가 공존하며 '변화'하고 또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다. 🌈

- 1 영도 본점에는 어묵 베이커리와 함께 어묵 체험관과 역사관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 2 부산역사(驛舍)에 위치한 삼진어묵 매장은 역사 내 매출 1위를 기록했다.
- 3 삼진어묵 베이커리 매장에서는 어묵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다.



회사를 혁신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



“10배 뛰는 혁신, 즉 문샷(moonshot)을 목표로 설정하면 마음가짐부터 달라진다.
10%의 목표에서는 나오지 않는 열정이 생기고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과 생각을 찾게 된다.”

문샷 싱킹

MoonShot Thinking

• 혁신은 ‘사람’이 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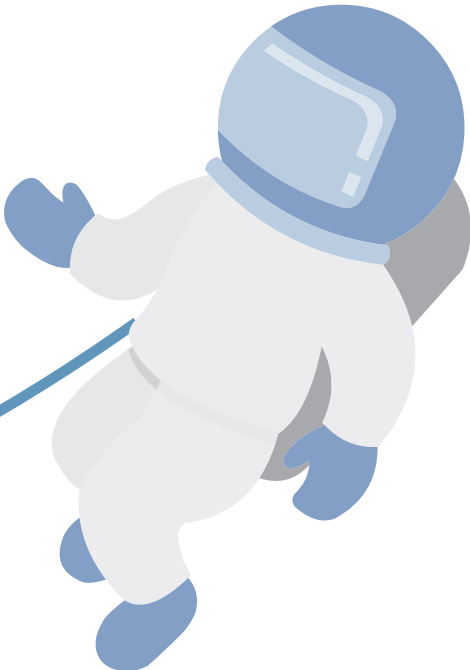
‘위기 경영’ - 한국에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조직 내 긴장을 늦추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다. 잭 웰치 시절의 제너럴 일렉트릭(GE)이 유행시킨 이후 특히 요즘과 같이 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잘나갔던 대기업이 하나둘씩 쓰러지는 상황에서 자주 언급되는 용어이기도 하다.

하지만 세계 혁신 수도 실리콘밸리에서는 ‘위기 경영’이란 말을 듣기가 쉽지 않다. 창업 자체가 모험이고 도전이며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일 것이다. 무엇보다 그들의 DNA에는 실패가 성공이고 파괴가 창조이며 위기를 곧 기회와 동일시하는 문화가 깊게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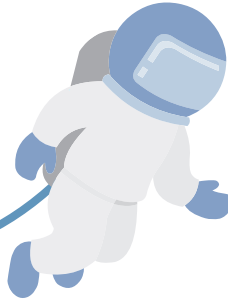
미국은 세계 경제의 회복을 이끌 것이란 자신감이 넘치고 있다.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Fed) 차기 의장이 최근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최소 3% 이상’에 달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도 자신감의 표현이다. 미국의 이 같은 자신감은 금융자본보다는 실리콘밸리로 대변되는 신(新)산업의 힘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실리콘밸리의 가장 큰 특징은 그들은 혁신을 창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혁신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며 ‘혁신적인 직원’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것을 내재화하고 사람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들은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추고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인다.

그들은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내는 노하우뿐 아니라 어떻게 직원들을 혁신적인 사람들로 만드는가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



‘디 싱킹’
다섯 가지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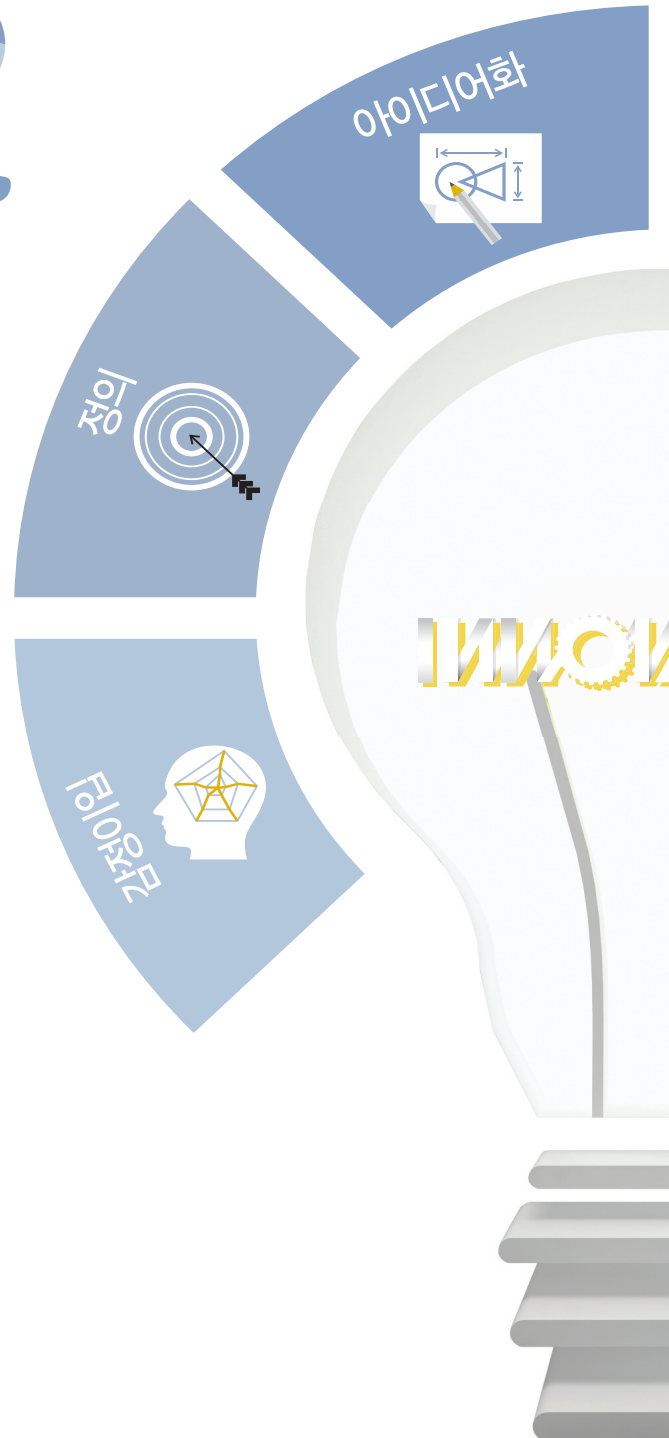


10배 혁신을 위한 문샷 싱킹

이렇게 스스로의 한계를 돌파하는 혁신적인 직원을 만드는 세 가지 핵심적인 생각과 방법론이 바로 ‘문샷(MoonShot) 싱킹’ ‘디(D: Design) 싱킹’ ‘린(Lean) 싱킹’이다. 문샷 싱킹은 ‘10%보다 10배 혁신(진화, 성장)하게 하는 급진적인 생각’을 말한다. 구글의 자율운전 자동차(Self-Driving Car)나 구글글라스 등은 모두 문샷 싱킹의 원리에서 나왔다.

문샷 싱킹을 회사에 적용하면 제품을 지금보다 10% 좋게 만들거나 매출을 10%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10배 비약적으로 진화시키거나 매출을 늘리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매출 30억 원을 300억 원으로, 300억 원을 3,000억 원으로 단기간에 끌어 올리려면 현재 있는 방식과 사업 구조로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아예 불가능한 일인가? 10배 뛰는 혁신, 즉 문샷을 목표로 설정하면 마음가짐부터 달라진다. 10%의 목표에서는 나오지 않는 열정이 생기며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과 생각을 찾게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10배 뛰는 혁신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이다. 10% 끌어 올리는 것은 뛰어난 경영자 혼자서도 가능할 수 있지만 10배 뛰는 혁신은 개인의 아이디어와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다른 사람과의 협업(Collaboration)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전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고 혼연일체로 뛰어야 한다. ‘문샷 싱킹’을 ‘전 세계적인 문제 해결’에 적용하면 기아, 물 부족, 기후변화 등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문샷 싱킹을 회사 DNA로 내재화하려는 회사가 구글이다. 구글은 이 같은 ‘문샷 싱킹’을 그들답게 정의를 내리고 ‘Solve for X’라는 프로젝트에 적용하고 있다. 그들은 “문샷 싱킹을 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문제의식(Huge Problem)을 갖고 근본적 해결 방식(A radical Solution)을 찾으며 혁신적인 기술(The Breakthrough Technology)을 적용해야 한다. 이것이 문샷 싱킹의 필수조건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글 | 손재권 (매일경제신문 모바일부 기자)

문화일보 사회부와 전자신문 IT산업부 기자를 거쳤고 스탠퍼드 아태연구소 방문학자(2012~2013)로 재직했다. 산업, 정부부처를 오랫동안 담당했으며, 현재 삼성전자, LG전자, KT, SK텔레콤 등 국내 정보통신, 정보기술 산업 현장과 구글, 애플, 페이스북, 트위터, 쉐라,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의 변화 현장을 취재 중이다. ※수상 : 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012년 5월), 한빛복지협회의 '한빛상 언론부문'(2007년) 등 ※저서 : '파괴자들_ANTI의 역습'(공저, 2014), '파괴자들 Disruptors'(2013), '앱스토어 경제학'(공저, 2010)' 등

원형 제작



테스트



...

혁신을 위한 방법론과 실행론

회사의 문샷이 정해졌으면 이를 해결하는 방법론이 '디(D: Design) 싱킹'이다. 혁신은 사회 과학과 비즈니스, 기술의 교집합에서 나온다는 생각이다. 이를 '문제 해결 방법론'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혁신이 되고 파괴되며 창조된다는 원리다. 창조나 발명이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같다. 불편함을 느끼거나 현재 존재하는 제품(서비스)보다 더 나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 혁신은 인간이 가치를 느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가시적으로 만들기 위해 기술이 필요하고 항상적 혁신을 위해 비즈니스 모델을 갖춰야 한다.

마지막으로 '린 싱킹'은 실행론이다.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시작한다고 가정하자. 먼저 사업성 조사, 시장 조사를 생각하게 된다. 주위의 조언도 구한다. 때론 컨설팅 업체에 시장성 등에 대해 컨설팅을 의뢰하기도 하고 인맥을 쌓기 위한 비용도 든다.

이 시간은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린 싱킹은 이 과정 자체를 제거해야 할 낭비라고 본다. "사업은 계획하는 것이 아니다. 실행하는 것이다"라는 논리다. 사업을 시작할 때 누구나 하는 '사업 계획(Business Plan)'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시작하라!"는 주문이다. 이 같이 빠른 실행이 가능해진 이유는 오픈 소스 플랫폼, 클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 등 해결 방식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이다.

예전엔 창업을 위해 인맥을 쌓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을 위한 조언이 넘쳐난다. 또 아파치 소프트웨어, 모질라 재단, 우분투와 같은 오픈 소스 플랫폼은 창업 시 기술 장벽과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을 크게 낮추었다. 엔지니어가 부족해도 공동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깃허브(GitHub)'와 같은 사이트도 있다. 공개된 소프트웨어와 이를 통한 다양한 성공 스토리는 실제로 '시작 장벽'을 크게 낮추고 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고 혁신의 엔진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사업계획 없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전통적인 사업 계획론(투자자, 팀 구성, 상품출시, 판매시기)에 의해 A부터 Z까지 잠복하듯(Stealth Mode) 치밀하게 준비한 후 "짠"하고 나타나는 것은 빠르게 바뀌는 시장 환경과 소비자 요구 속에서 점차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목표를 설정(문샷 싱킹)하고 비즈니스와 테크놀로지, 인간의 가치를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계획(디 싱킹)을 세우며 일단 실행하고 실패하며 배우(린 싱킹)는 세 가지 방법은 실리콘밸리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기업이 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말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지나가자

자기 소유의 주택이 아닌 경우 부득이 전세나 월세를 이용하게 되는데, 집주인의 비협조로 전세권이나 임대차등기를 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경우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의 말만 너무 믿을 경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이를 대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큰 손해를 예방하도록 하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해설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 ① 임차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한 경우: 전입신고일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임차할 권리 및 계약기간 종료 후라도 보증금 반환 전까지는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 **대항력**과 보증금 중 일정금액(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게 된다.
- ②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경매 또는 공매 시 후순위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된다.

“임차권 등기명령”

임대차기간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이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후 이사를 하면 우선변제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 존속기간의 보장”

- ①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②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묵시적 갱신**)
- ③ **묵시적 갱신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본다.**
단,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나 그 효력 발생은 통지를 한 날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한다.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 사례로 풀어보는 Q&A

- Q 2014년 5월 1일 보증금 400만 원/월세 24만 원/1년 계약한 후, **임차인(세입자)**이 2015년 4월 25일에 **임대인(집주인)**에게 2015년 5월 1일에 이사하겠다고 통보하고 실제 이사를 했다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A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 상태이므로 계약만료 3일 전의 해지 통보는 그 해지의 효력은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효력이 발생할 때 (2015. 7. 24. 또는 2015. 7. 31.까지)까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월세지급부담이 의무 발생하므로 보증금 중 일부의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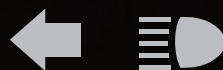
※ 다음 사보에서도 법무팀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외' 내용으로 계속해서 찾아뵙겠습니다. 🌈

자동차 계기판 어디까지 알고 있니?

운전자의 시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한 자동차 계기판은
이따금씩 우리에게 경고를 하기도 한다.
계기판의 소리 없는 외침
자세히 들어볼까요?

ABS (Anti-lock braking system) 경고등

브레이크 잠김방지 장치 ABS를 보유한 차에 있는 표시등으로 ABS는 브레이크를 밟아도 바퀴의 방향전환이 가능하게 한 안전장치이다. ABS 경고등이 주행 중에도 꺼지지 않거나 주행 중에 갑자기 불이 들어오면 ABS장치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점등된 상태에서 운전할 때는 평소보다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강하게 제동해야 한다.



엔진오일 경고등

주전자 모양의 엔진오일 경고등은 엔진오일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는다는 신호이다. 경고등이 점멸될 경우에는 오일펌프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럴 땐 가까운 정비소를 방문해 정비를 받아야 한다.



엔진 경고등

엔진 경고등은 주행 중 엔진에 이상이 생기거나 연료 관련 부품에 이상이 있음을 알려준다. 또한 엔진 관련 배선의 접촉 불량이나, 관련 장치에서 누유가 발생할 때도 점멸된다. 엔진 경고등이 켜진 뒤,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가까운 정비소에서 바로 점검받을 것을 필요로 한다.



Red light : 일반적으로 빨간색 경고등은 긴급한 경고를 나타내는 뜻으로 위험하니 운전을 멈추고 조치하라는 표시이다.

Yellow light : 노란색 경고등은 주의를 요하거나 경고의 의미를 가진다. 안전을 위해 주의하라는 표시이다.

TPMS 경고등

TPMS (Tire pressure monitoring system)는 타이어 공기압을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으로 타이어의 공기압이 현저하게 낮을 경우에 켜진다. TPMS 경고등은 육안으로 구분하기 힘든 타이어 상태를 체크해 알려주기 때문에 유용하다.



수온 경고등

냉각수 수온이 적정 온도보다 많이 올라가거나 냉각수가 부족할 경우에 경고등이 점멸된다. 냉각수는 자동차 엔진의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며 냉각수가 부족하게 되면 엔진의 열을 식혀주지 못해 엔진이 과열되면서 부품 손상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100% 100



AUTO
HOLD



브레이크 경고등

브레이크 패드가 모두 마모되어 브레이크액이 최저기 준선 아래로 내려갔음을 뜻한다. 또한 주차브레이크가 완전히 풀리지 않을 때와 주차브레이크를 해제할 때 경고등이 켜지기도 한다.



연료 경고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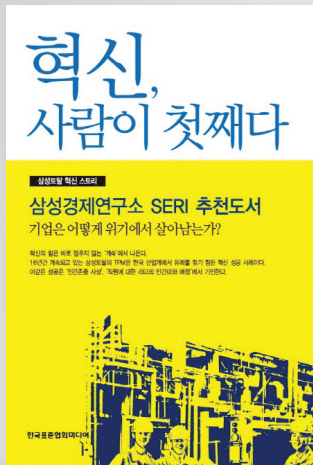
가장 기본이지만 때때로 당황스러운 연료 경고등은 연료가 충분하지 않을 때 켜진다. 자동차 별로 연료 경고등이 켜지는 시점은 다르다. 일반적으로는 연료 경고등이 켜진 뒤에도 30~100km 정도는 더 주행할 수 있다.

당신은 '변화와 혁신'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변화와 혁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선 케케묵은 것들을 비워내고 새로운 생각을 채워야 한다.

그렇게 비우고 채우다 보면 혁신은 늘 생각 외로 간단하고 찾기 쉬운 곳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필독서를 소개한다.



벼랑 끝 위기를 성공으로 바꾼 삼성토탈의 사람 중심 TPM
(Total Productive Management) 혁신 이야기를 담았다.

TPM의 탄생부터 성장, 발전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철학과 정신까지 모두 전한다.

16년이라는 세월을 거쳐 그들만의 사람중심 혁신 문화를 완성했다.

삼성토탈의 TPM은 많은 이들에게 지표가 되고 있다.

특히 직원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함께 만들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혁신, 사람이 첫째다

저자, KSA TPM·EAM센터
출판사, 한국표준협회미디어

이기는 조직을 만드는
김쌍수 前 한국전력공사 사장의
혁신 경영 노하우를 담았다.
42년 혁신 경영 철학을 정리한 '혁신 10계명'과
'Great Company'를 향한 로드맵'으로
치열해진 글로벌 경쟁 시대에 직면한 기업과
비즈니스맨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5%는 불가능해도 30%는 가능하다

저자, 김쌍수
출판사, 한스미디어



삼성, 현대, LG 등 기업의 변화와 혁신을
25년간 직접 지도해온 저자가 변화의 성공담과
지혜를 생생한 이야기로 풀어냈다.
저자는 변화에도 때가 있다고 말한다.
바로 그때가 변화의 골든타임이다. 저자는 이 골든타임
내에 변화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지금 이 변화의 골든타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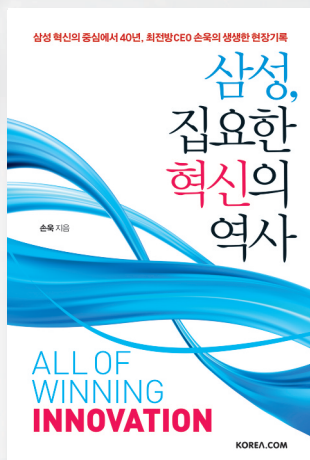
저자: 이태복, 최수연
출판사: 패러다임컨설팅

저자는 역사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 앞에 닥친 문제 해결의
키워드를 발견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역사의 현장에는 비즈니스의
생존과 변화의 원리가 숨겨져 있다.
역사 속에서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답을 찾아 독자에게 제시한다.



변화 혁신, 역사에서 길을 찾다

저자: 안계환
출판사: 대림북스



저자 손욱은 평사원으로 입사해 삼성 SDI 대표,
삼성종합기술원장, 삼성인력개발원장을 거쳤다.
저자가 삼성에서 보고 느낀
집요한 혁신의 현장을 생생하게 들려준다.
오늘의 삼성을 있게 한 경쟁력, 혁신의 조건부터
방법 그리고 전략까지 알려준다.

삼성, 집요한 혁신의 역사

저자: 손 욱
출판사: 코리아닷컴

중국 창주성우 기공식 개최



6월 11일, 중국 하북성 창주시 발해신구 중국-체코 첨단기술 산업개발구에서 창주성우기차부건유한공사의 기공식을 개최하였다. 이명근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창주시 상리광(商黎光) 당서기, 왕따후(王大虎) 시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께 환영의 인사를 전하며, 금년 11월 말 준공을 목표로 친환경 공장을 건설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건전한 회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당사는 2002년 현대기아자동차그룹과 북경, 무석지역에 동반 진출을 시작으로 현재 영성, 심양, 연태로 사업장을 확대하였으며, 이번 창주공장을 비롯하여 향후 건설 예정인 중경공장이 완공되면 중국 시장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문용 기술연구소장, 산업포장 수훈



5월 19일, 창조와 혁신의 축제인 '제50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당사 연구소장인 이문용 부사장이 산업포장을 수훈하였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 이문용 연구소장은 1994년 당사 기술연구소 설립 후 현재까지 자동차 차체 부품 연구개발에 헌신하면서 레이저 용접기술과 롤 포밍 응용기술 개발, 고인성 알루미늄 적용 차체 프론트 사이드 멤버의 세계일류상품 인증, 특허출원 강화 및 특허기술 정보 관리를 위한 MPSS프로그램을 통해 신제품 창출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아산성우하이텍 고홍열 반장, 국무총리표창 수상



제12회 자동차의 날을 맞아 5월 12일, 서울 COEX에서 개최된 기념행사에서 아산성우하이텍 자재지원반 고홍열 반장이 자동차 산업 발전 유공자로 선정되어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였다. 고홍열 반장은 원자재 관리 전산화를 통한 재고 감소와 선입선출 적재방식과 제품 포장변경 제안을 통해 불량을 저감, 원자재 상하차 방법 개선을 통한 인건비 절감 등 현장 개선 창안으로 생산성 제고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였다.

감사불씨 양성교육 실시



성우하이텍과 아산성우하이텍에서 선발된 115명을 대상으로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감사불씨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행복나눔 125운동의 개념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하는 방법, 감사나눔운동 성공사례 학습, 감사불씨 실천 다짐, 100감사 쓰기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양성교육을 이수한 불씨들에게는 감사불씨 배지가 지급되었으며, 다 같이 '나·작·지'(나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를 외치면서 각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감사나눔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다짐하였다.

제12회 성우하이텍 회장배 족구, 탁구, 풋살대회 개최



4월 6일부터 성우하이텍과 아산성우하이텍의 6개 사업장에서 펼쳐진 '제12회 성우하이텍 회장배 족구, 탁구, 풋살대회'가 50여 일의 일정을 끝으로 5월 22일 서창공장 전용 경기장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당사는 노사 간의 화합을 증진하고 사업장 간 소통을 증대시켜 자율적 한마음 경영을 이루기 위해 매년 족구, 탁구, 풋살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금년 본선경기는 때 이른 더위 속에서도 소속 팀과 사업장의 명예를 드높이려는 선수들의 명승부가 매 경기 펼쳐졌다.

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가



당사는 5월 20일 "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중 국민체감형 훈련(복합 재난 대응훈련)의 기장군 대표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기장소방서, 기장군 청 재난안전과, 의용소방대와 함께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였다. 총무안전환경팀에서 주관한 합동 소방훈련에는 당사의 자위소방대 65명이 참여해 당사의 자체 시나리오에 따라 소방훈련을 진행하였다. 성우하이텍 자위소방대는 화재 발생 후 5분 내 초기진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매년 민간합동 소방훈련을 통한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체코슬로바키아어과 방문



5월 29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체코슬로바키아어과 김인천 교수와 학생들이 이 당사 서창공장을 방문하였다. 한국외대 체코슬로바키아어과는 2014년 7월 9일 당사와 인턴십 MOU를 체결한 후 매 학기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체코공장에 파견될 예비 실습생들은 이번 현장실습을 통해 당사의 기업문화와 함께 자동차 차체 부품을 생산하는 전 과정을 학습하며 관련 설비와 공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5년 근로자 건강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상 수상



7월 9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공동 주관한 제48회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당사가 우수상을 받았다.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이란 보건, 정신, 영양, 운동 등 4가지 영역 속에서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을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가는 활동을 말하는데, 당사는 근골격계 예방활동 및 금연 프로그램, 질병상해지원제도 및 흡사량방 운영 등 다양한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의 우수사례를 인정받아 지역 예선을 거친 12개 사 중에서 우수상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 **SEOCHANG FACTORY**

50, Sojugongdan 3-gil, Yangsan-si, Gyeongsangnam-do, Korea

- **TECHNICAL INSTITUTE**

18-2, Sojugongdan 6-gil, Yangsan-si, Gyeongsangnam-do, Korea

- **STAMPING MOULD FACTORY**

30, Sojugongdan 7-gil, Yangsan-si, Gyeongsangnam-do, Korea

- **JEONGGWAN FACTORY**

2-9, Nonggong-gil, Gijang-gun, Busan, Korea

- **COIL CENTER**

151, Jangansandan-ro, Jangan-eup, Gijang-gun, Busan, Korea

- **JISA FACTORY**

31, Gwahaksandan 1-ro, 60beon-gil, Gangseo-gu, Busan, Korea

